금주의 기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제자들에 주신 경고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처처에 지진 이상기온 홍수 등 천재지변과 거짓 선지자 등의 징조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사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48호 2011년 8월 2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셸 바크먼, 공화당 대권경쟁 불붙여

미 언론, 공화당 경선 첫무대 아이오와 예비투표서 1위

오는 2012년 미국 공화당의 대권 후보를 위한 당내 경쟁이 일찌감치 달아올랐다.

공화당의 잠룡 8명이 11일, 아이오와 주 대학도시 에임스의 아이오와주립대학에 모였다. 아이오와는 50개주 가운데 내년 초 공화당의 첫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여기서의 승부가 경선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에는 매우 특별한 곳이다.

그러나 이번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비한 후보는 다름 아닌 정치계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되는 미셸 버크먼((Michele M, Bachmann) 연방 하원의원이다. 그녀는 주의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치며 이름을 알리는 등 주에서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2006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2007년부터 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10년 보수주의 정치운동인 티파티를 주도하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2010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동성결혼, 낙태에 반대하고 정부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보수주의 입장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이름을 알리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부상했다.

2011년 6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선호도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이번 8월 13일 아이오와 주 에임스에서 열린 비공식 예비투표인 에임스 스트로폴에서 1위를 하며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미 언론은 그녀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미셸 바크먼 연방하원의원이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성의원 미셸 바크먼의 돌풍이 거세다. 보수 성향 유권자단체 티파티의 지원을 등에 업은 그는 경선전의 첫 무대였던 아이오와 주 비공식 예비투표에서 승리하며 미국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또 한 번 각인시켰다.

13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크먼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이날 아이오와 주 대학도시 에임스에서 열린 '에임스 스트로폴'(비공식 예비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승리로 바크먼 의원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지 2개월 만에 현재 공화당 내 후보군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 주지사를 맹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바크먼 하원의원의 대선을 향한 운동은 철저하게 그녀의 지역구인 미네소타에서 출발한다. 이는 최근 일기 시작한 정치인들의 지역구 존중 즉 워싱턴DC 연방 정치에서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해 텃밭을 다지는 로컬리즘(localism)이라고 월드(World)지는 분석한다.

뉴욕타임스 역시 여성으로서 2012 대권 경쟁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바크먼 하원의원의 정치적 배경을 그녀의 신앙과 지역구인 미네소타를 집중 보도했다(In Minnessota, Roots of Bachmann's Run for for Presisent: Roots of Bachmann's Ambition Began at Home).

그녀는 변호사 출신으로 특별한 경력도 없이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공화당 대선주자 가운데 덜컥 '현재 스코어 1위'를 기록 중이다. 말 그대로 혜성처럼 나타난 다크호스다.

조명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번 13일 공개된 투표결과였다. 아이오와에서 실시한 공화당 대선후보 첫 경선 예비투표에서 쟁쟁한 남성 후보 8명을 제치고 28.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혼자서만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화당 후보들까지 "그녀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오바마의 가장 강력한 적수"라고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2면으로 계속〉

3면 실패는 성장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7면 종교다원주의 연구 (2) 조진모 목사(합동신학교 교수)

9면 인터뷰 광복 66주년을 회고하며... 박영창 목사

13면 멕시코 사랑선교회 선교동행기 (상)

SB48, 주민투표로 번복 가능!

CA주, 9월 30일까지 75만명 청원하면

캘리포니아에서의 동성결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민발의안 8의 통과로 전통적인 결혼의 가치를 수호하게 된 보수 복음주의 진영이 주 대법원의 위헌이라는 판례에 따라 주춤하고 있는 동안, 진보 진영은 교묘하게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 결혼을 이성간의 결혼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르치게" 하는 법안 SB 48(Fair Education Act)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9면]

작년 12월 13일 동성애자인 마크 레노 주 상원의원에 의해서 입안된 동 법안은 민주당 상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주 상하원을 통과, 드디어 지난달 14일 민주당 소속인 게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캘리포니아 주내 전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 교과서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수 복음주의 진영은 이 법령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고 있다. 즉 민주당 주도로 입법된 동 법령을 번복시키기 위한 주민 청원 750,000명을 9월 30일까지 모으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다각도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복음주의진영, 친동성애적 교육내용 공립교 허용
법안48 번복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SB48" 법안은 한마디로, 현재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향후 여자동성애자, 남자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취향에 따른 삶이기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 법령이다. 따라서 개인이 본래 태어난 성별과 상관없이 성에 대한 정체를 상황에 따라 "성"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또는 행동 등에 의해 성분별을 해야 하기에 성전환자나 성도착자 역시 "성별"(sex)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성별(sex)이란 뜻을 바꿔서 여자, 남자 구분이 되지 않는 "성"(gender)으로 바꾸게 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48" 법령은 동성애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평하고(F), 책임감 있고(A), 포괄적이며(I) 또한 존경할만한(R) 교육법안"이라고 그들 사이에서 불리우며 또는 공평한 교육법안(FAIR Educational Act)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우고 있다.

결국 동 법안은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들의 삶의 스타일을 아주 바람직하고 호감이 있는 멋진 삶의 태도/스타일이라고 유치원부터 12학년생들의 교육 방침과 시스템 등 모든 교과서들에 삽입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다음 달 30일까지 동 법안 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받고 있다. 즉 동 법안의 적법성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750,000명의 청원을 받아 다음 투표에서 동 법안 폐지를 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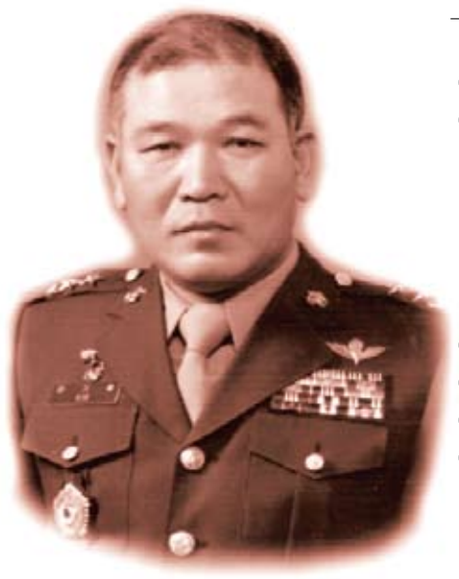
관련단체 중 북가주에서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보호"(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tvnext.org)가 가장 효과적인 캠페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 단체는 지난 2008년도 미국 대선 때, 주민발의안(전통결혼지지)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결성됐던 모임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남가주에까지 광고를 비롯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 사이트에 접속하면 한글로 된 정보와 청원에 필요한 서류 양식 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유권자 즉 시민권자만이 청원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30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추계 간증성회 안내

해군 중앙교회 장로,전 해병대 부 사령관,예비역 해병소장
전 한국 해병대 부사령관이시며 기적과 축복의 삶을 체험한 믿음의 장군, 김기홍 장로님을 초청하여
제30차 미주 추계 간증성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11년 9월 4일 ~ 11월 13일



약 력

- 1964 해군 사관학교 18기 졸업, 해병소위 임관
- 1966/1-68/1 월남전 참전(해병 청룡부대)
  월남 짜빈동 작전지휘 (중위)
  전 중대원 일계급 특진
  (신화를 남긴 해병의 전설적 명예창조)
  충무무공훈장, 월남 엽송 무공훈장 수훈,
  한국/미국 대통령 부대표창
- 1970/10 진해 가덕도 침투간첩 소탕작전 수행
- 1984/8-86/1 해병 2사단 5연대장(대령)
- 1990/1-91/1 해병 제2훈련 단장(준장)
- 1991/1-93/12 해병대 부사령관 (소장)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목원대학교 교수
- 국내외 3600여회 성회 인도

강 사 : 김기홍 장로

※집회를 원하시는 교회 연락 바랍니다.
● 웹사이트 : www.kimkihong.com

제30차 김기홍 장로 초청 미주 추계 간증성회 일정

일 시	교 회	담임목사	지 역
9월 4일(주일)~9월 7일(수)	메이컨 한인장로교회	오성복	GA
9월 8일(목) ~ 9월11일(주일)	새에덴 한미교회	강대혁	TN
9월12일(월) ~ 9월14일(수)	주님의 영광교회	이흥식	GA
9월15일(목) ~ 9월18일(주일)	데이토나 비치 한인침례교회	허병옥	FL
9월21일(수)	게인스빌 한인장로교회	김승홍	FL
9월22일(목) ~ 9월25일(주일)	탈라하시 한인 침례교회	나기수	FL
9월27일(화)	슈시티 한인 침례교회	오형식	IA
9월29일(목) ~ 10월 2일(주일)	그랜드 폭스 한인 소망교회	탁균호	ND
10월4일(화) ~ 10월 5일(수)	알링턴 한미 제일 침례교회	오문탁	TX
10월6일(목) ~ 10월 9일(주일)	휴스턴 한인 장로교회	송영일	TX
10월10일(월)~10월12일(수)	꿈이 있는 교회	유연근	TX
10월13일(목)~10월16일(주일)	포도윈 장로교회	양현표	IL
10월17일(월)~10월19일(수)	아이다호 한인장로교회	정은표	ID
10월20일(목)~10월23일(주일)	포틀랜드 제일 침례교회	서영주	OR
10월24일(월)~10월26일(수)	산돌교회	김사무엘	CA
10월27일(목)~10월30일(주일)	토렌스 조은교회	김바울	CA
11월 3일(목)~11월 6일(주일)	나침반 교회	민경엽	CA
11월 8일(화)~11월 9일(수)	레드랜드 한인교회	정승재	CA
11월10일(목)~11월13일(주일)	미주비젼교회	이서	CA

간증성회문의처
● 서울 : 김기홍 장로(02)842-3313 ● 셀폰 (010)8929-4333 ● 팩스(02)848-3315 ● 미주 (551)655-4224

시 론

진정한 스타에게 박수를…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지난 20일 한국의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는 국내외 시선이 모아진 가운데, '코리아 갓 탤런트'(Korea's Got Talent)라는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 결선이 있었다. 껌팔이와 막노동으로 살아온 22세의 청년이 부른 '넬라 판타지아' 때문에 유명세를 탄 이 프로그램에서 1등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으나, 한국의 폴포츠라는 별명까지 얻은 최성봉이라는 청년의 인기는 여전하였다. 3살 때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지고 5살 때 구타를 못 이겨 도망친 후, 생존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며 달려오기만 했던 이 청년에게 '코리아 갓 탤런트'는 유명인이 되기 위한 철없는 노력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탈출구와 같은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2007년 영국의 '브리튼스 갓탤런트'(Britain's Got Talent)를 통해 전화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오페라가수로 거듭 태어난 폴 로버트 포츠(Paul Roberts Potts)나, 2009년 같은 대회에 나와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수잔 보일(Susan Boyle) 역시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인정받은 케이스가 된다. 이처럼 각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숨은 인재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다. 이미 2006년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가 시작한 바 있으며, 2010년에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 그리고 2011년에는 한국이 뒤를 이어 오디션 프로그램의 장을 새롭게 열었다. 현재 40여 개국에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니 놀랄만하다. 여기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의 영향력 및 유사 프로그램들의 파워를 합하면 현 사회는 국경 없는 스타를 만들기 위한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다.

주최하는 방송국이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대중들에게 새롭고 활력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출연자에게는 자기 소질을 대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탄탄한 경제 기반을 위해 한 번은 해 볼만 한 도전이 될 것이다. 또한 재능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 혹은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성공과 신분 상승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보면 왠지 모를 허탈감이 든다. 프로그램 때문에 명성이 높아진 심사위원들의 지나치리만큼 냉소적이며 직설적인 평가도 귀에 거슬리며, 무대에 서기 위해 흘렸을 적지 않은 땀방울을 뒤에 두고 쓸쓸히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일종의 연민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사회가 성실한 보통사람을 건강한 삶의 모델로 제시하기보다는, 한 번의 기회로 크게 출세할 수 있다는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연예계의 화려함에 가슴앓이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건강한 자아상 정립보다는 '스타'가 되려는 생각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비록 스타들의 경제적 가치가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해도 이것이 미래의 국가적 손실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 국가만의 일이겠는가? 교회와 교계적으로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의 '스타' 시류가 교계에 흘러 들어와서는 안된다. 호흡 있는 동안에 자기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갈 '헌신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목숨으로 지켜야 할 '교회'들이, 현 시대가 추구하는 '스타 되기' 및 '스타 만들기'에 덩달아 춤을 춘다면 이는 교회 존재의 본질이나 십자가 신앙의 핵심은 아니기에 힘을 합하여 막아야 한다. 만일 이미 그 흐름에 끼어들어 이른바 멀리 있는 '스타 교회,' 이야기도 나눈 적 없는 '스타 목사'들에게 마음 주느라, 자기 교회 및 자기 목회자를 사랑이나 자랑도 못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들은 가까운 영역의 사랑과 자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물론 '스타'에게는 범인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배울 것이 많고 시대적인 영향력도 크다. 하지만, '스타'가 반드시 모델인 것은 아니며, 또한 소수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고 소수의 목회자가 우리 주님의 인격과 말씀을 다 나타내 보일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스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 몇 영혼 때문이라도 자기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무명의 목사와 평신도 목자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시골교회, 개척교회, 혹은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실하게 따르는 교우들에 의하여 이뤄갈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스타들이다. 우리가 정작 비추어야 할 빛은 별빛(starlight)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세상 스타들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박수를 보낸다.

미셸 바크먼, 공화당 후보선호도 1-2위

미 언론, 공화당 경선 첫무대 아이오와 예비투표서 1위

〈1면에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국가신용등급 강등, 오바마 대통령 지지도 추락…. 이 와중에 그녀가 '뜨는' 이유는 뭘까. 바크먼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캐릭터다. 민주당 가문에서 태어나 공화당으로 전향했으며 평소 언행에도 극도의 '강경함'과 '감수성'이 동시에 묻어난다.

그녀는 보수 중에서도 강경 보수다.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며 연설에도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 동성애와 낙태는 '결사반대'다. "동성애자들이 집에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협박 메일을 보내기도 하죠. 시청 화장실에서 두 명의 여성이 저를 구석에 몰아넣고 동성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소리를 지르며 구조 요청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동성 간 결혼은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한없이 부드럽고 감성적이며 모성애가 넘쳐난다. 유세장에서 아기를 안기 전에는 보드라운 아기 피부가 다칠세라 장신구를 벗는다. 저 멀리서 질문한 사람에겐 단상에서 내려와 답을 하고 유권자와 춤을 추며 어울린다. 무엇보다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23명의 아이를 입양한 대단한 어머니다. 심리치료사인 남편과 함께 '크리스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위탁시설을 지어 식이장애 10대 소녀들을 돌보는 점도 훈훈하다.

그런 그녀가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것은 2000년. 그해는 물론 2002년 미네소타 상원의원에 줄줄이 실패할 정도로 출발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끈질기게 낙태반대, 동성결혼 반대 운동을 펼쳐왔고 그 결과 '정치 여전사'가 아니라 '사회 여전사'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정치과학자인 스테판 시어 칼턴대학 교수는 "바크먼에겐 확실히 혁신적인 면이 있다. 그녀는 법조인이나 국회의원의 리더십에 의존한 적이 없다. 대신 대중이 참여하는 십자군운동을 주도하길 좋아한다"고 평가한다. 이런 점이 바로 권위적이고 콧대 높은 기존 공화당 의원들과 확연히 차별화된다는 것. 바크먼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중과 엘리트, 종교와 정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녀에게 묘한 매력을 느낀다. 공화당원이지만 진짜 소속은 국가와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인상마저 준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로널드 레이건을 위대하게 만든 건 주지사를 하며 쌓은 정치적 경험이 아니라 핵심원칙들(core principles)"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명한 소신과 열정적인 태도야말로 리더십을 잃어버린 오바마 정부, 위상이 흔들리는 조국에 실망한 미국 백인 중산층이 폭넓은 지지를 보내는 이유라고 미 언론은 해석해주고 있다.

한편 소위 "에임스 스트로폴"은 아이오와의 에임스 시에서 열리는 비공식 예비투표로, 밀짚(straw)을 날려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듯 여론을 가늠하는 역할을 한다. 미 정치권이 이 스트로폴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초의 스트로폴인 데다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도 내년 2월 6일 아이오와에서 가장 먼저 실시되기 때문이다. 공화당 아이오와 지부가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1979년 처음 시작한 이 예비투표는 구속력이 없는 행사지만, 이런 점 때문에 초반 경선 레이스의 판도를 좌우하는 풍향계로 평가 받아왔다.

1999년 이 스트로폴에서 1위를 차지한 조지 W 부시 후보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을 제외하면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정작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가 없고, 1위 후보가 공화당의 대선후보에 오르지 못한 적도 많아 신뢰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2007년 스트로폴에서 1위를 차지한 롬니는 다음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주지사에 밀렸고, 정작 공화당 대선후보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게 돌아갔다. 그럼에도 공화당 후보들이 이 스트로폴에 신경을 쓰는 것은 여기서 하위권으로 밀릴 경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팀 폴렌티 전 주지사는 14일 중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2010년 보수주의 정치운동 티파티 주도하며 전국 유명세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동성애, 낙태반대 강경하면서 섬세

미 공화당 경선은 앞으로 롬니-바크먼-페리의 3파전 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롬니는 7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냈지만, 이번 스트로폴에 전력을 다한 대다수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전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 순위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다만 바크먼 의원이나 페리 주지사는 모두 보수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어 경선이 본격화하면 티파티의 주인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페리 주지사는 바크먼 의원처럼 '작은 정부'와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지만, 처음으로 텍사스 주지사 3선에 성공한 행정력까지 겸비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페리 주지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선 출사표를 통해 "신앙심과 가족의 지지, 미국의 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중도 노선으로 계파 모임인 "블루 독"(Blue Dog)의 세력약화로 인한 강경 진보 노선 그리고 티파티 운동의 지지를 받는 버크만 의원이나 페리 주지사의 등장은 '2012 대선이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의 이념적 노선을 가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공화당의 차기 대권 후보는 무엇보다도 지역구나 지역민들로부터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 경향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만이 생존하게 된다.

잇따른 정치 실패로 경제 위기를 부추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여 있다. 그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천명했던 "미국인의 희망"은 사라졌다. 특히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1941년 이후 70년 만에 'AAA'에서 'AA+'하향 조정되자, 미국인들은 아예 오바마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가 실패할 미국 대통령으로 남을 지는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되느냐에 남아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213)383-0200(대 표) (323)665-0009(광고국)
· Fax(213)380-5951(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2011
Fall Semester
신·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2011년 8월22일~12월2일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thletic Mission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원격 교육 강의 :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혹은 J-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청빙

지원자격
청소년 선교에 열정이 있으며 신학 공부를 한 분
영어로 설교와 회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를 참조
http://www.kumcabq.com/YouthDirectorJobDescription.pdf

제출서류
이력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나 교수 추천서 1부
평신도 추천서 1부

제출방법
Attention : Pastor Kee Cheon Kim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마감: 2011년 8월 31일

문의 : 김기천 목사 TEL. 505-803-7716, abqkee@gmail.com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영어권 사역자 청빙
(English Ministry Pastor)

사랑한인교회에서는 이중언어 가능한 Youth Group(중고등부) 와 EM Group 을 섬길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Youth Group 1명
E.M. Group 1명]

자격(Qualifications)
- 1.5세, 2세 사역에 소명 있는 분
(Passionate for 2nd generation ministry)
- 영어설교가 가능하신분
(Ability to Preach in Fluent English)
- 정규신학대학 졸업 또는 재학중인 분
(M. Div or currently attending an accredited seminary)

제출서류(Application Requirements)
- 이력서 (Resume - includes family status with photo)
- 사역비젼 에세이 (Personal Statement about Vision)

접수마감일(Application Deadline)
2011년 9월 15일 까지

보내실 곳(Submit)
2801 W. Temple St. Los Angeles, CA 90026
교회: (213)380-0085 팩스:(213)380-0095
이메일 : LCK0085@SBCGLOBAL.NET / 웹사이트: www.lovekoreanchurch.org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Application will not be returned)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한인교회
Love Korean Church
담임목사 하재식

실패는 성장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리더십저널, 리더십전문가, 앨런 넬슨의 실전 리더십 중 실패 극복 원리 소개

리더십 이론이나 모델을 제시하는 책은 많지만 정작 사람들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개발시켜 주는 책은 드물다. 사실, 리더십을 말하는 책 몇 권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리더다운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 또한 직접 부딪혀 터득한 경험만 가지고 노련한 리더가 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리더십 전문가 앨런 넬슨은 리더십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최선의 방법은 리더십이라는 보석의 여러 면을 간단한 교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미국 남서부 지역 리더십센터 담당자이자 애리조나 스콧데일 가정교회를 세우고 인도하는 목사이며 10여 권의 책을 쓴 저자이다. 그는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리더십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레브(Rev)라는 잡지의 특약기고가이며, 존 맥스웰이 운영하는 인터넷 잡지 리더십 와이어드(Leadership Wired)의 도서 평론가이다 그래서 그는 "리더들을 먹이고 키우는 젖병"(Leader's Feeder)이라 부르는 45개 교과와 리더십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화 5편을 묶어 "실전 리더십 아이디어 5"(Leading Ideas)를 펴냈다.

하나님은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당신을 부르셨다. 효과가 검증된 넬슨 목사의 50가지 아이디어로 당신과 당신의 리더십 팀의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닦으라. 번쩍이는 도끼날로 큰 나무도 거침없이 찍어내는 노련한 리더가 될 때까지!

어떤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리더는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부정적인 리더는 일이 실패로 끝날 때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스스로만이 그런 문제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 그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부주의하며 툭하면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한다고 생각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한다. 반면에 긍정적인 리더는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또 실패로 인한 비난을 함께 짊어진다. 결국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는 리더에게 겸손이라는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촉매재이다.

리더도 인간이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망쳤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리더는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에 대해 자신이 원인제공을 한 점은 없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앨런 넬슨은 리더가 그들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일곱 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빈약한 의사소통

자신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구성원들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절대로 가정하지 말라. 여러분이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자주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시길 바란다.

2. 불충분한 자원

팀 구성원들이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리더의 책임이다. 팀 구성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패했다면 여러분은 그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

3. 부적절한 책임

리더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후관리와 업무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회의 성공과 성도들의 의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4. 불충분한 팀워크

여러분의 리더십 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각각으로 분산돼 있는지 아니면 한마음으로 뭉쳐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란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팀 구성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단합시키는 것이다.

5. 적임자 배치의 불균형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사람들을 능력, 재능, 열정, 전심전력할 수 있는 영역에 맞게 배치했는지 자문해 보시길 바란다.

6. 불충분한 훈련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적절한 사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리더십 하에 있는 사람들이 임무를 잘 달성하리라고 기대하기 전에 그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7. 잘못된 팀 구성

팀 구성원들의 호흡이 잘 맞고 단합이 잘되어 서로 보완하게 하는 일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결국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갖춘 리더라 할지라도 따르는 구성원이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는 팀 구성원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을 고려해야 사건이 터졌을 때 전혀 도움이 안되는 비난이나 비생산적인 불평을 방지할 수 있다.

리더가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는 것은 그보다 앞서 사람들이 리더의 리더십에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한다. 실력 있는 리더들은 "내 지휘 하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겸손이라는 파이 한 조각을 즐기라. 그리고 그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리더십이 더 발전하는데 박차를 가해보라.

충분한 의사소통, 사후관리와 업무진행 확인 필수

팀원의 실패를 자신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사로!

SVM, 선교 동원가의 자질 소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시110:3).

이 말씀은 청년들 헌신집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이다. 이 말씀에 붙잡혀 평생 온 세상의 젊은이들을 동원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학생자원자 선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의 창시자 로버트 P. 윌더(Robert P. Wilder)이다. 그는 모델적인 동원가이다. 프린스턴 신학교 시절 기도로 무장해 동료들과 함께 캠퍼스와 교회를 순회하며 수천의 자원자를 서명 받았고, 미국에서 SVM이 세워진 후에는 영국에 무디의 추천서 한 장 들고 단신으로 건너가서 케직 사경회에서 간증하는 중 영국 SCM의 초기 기틀을 놓은 헌신자(Donald Fraser)를 얻는 등 영국 SVM 형성에 기여했다. 이어 북유럽에서 학생선교운동을 일어나도록 고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 YMCA를 세웠다. 그리고는 미국과 영국의 SVM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달려와 젊은이들을 도전했다. 그는 어렸지만 동원가의 모든 자질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선교 동원가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눈과 불같은 열정 가져야

효과적 의사전달과 전략적 사고 필요

1. 새로운 안목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것은 선교 동원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 분은 잃은 동전을 찾아 온 집을 쓸고 찾아낸 후 기뻐 잔치를 벌이는 분이다(눅15:8-10). 잃어버린바 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민망한 마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깨어져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마23:37)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안목이다.

2. 열정

선교 역사상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선교 동원가들은 공통적으로 불같은 열정의 소유자였다. 그들이 소유했던 지속적인 열정은 사람들의 반대와 환경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온 것이기에 꺾이지 않았다. 이 시대 이런 열정적인 사람으로는 성공적인 동원가라 할 수 있는 OM의 조지 버워 형제와 YWAM의 로렌 커닝햄 형제가 있다.

3. 효과적인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선교 동원가에게 필요한 자질은 개인적으로, 때론 대중에게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지구력을 가지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말을 잘하는 것과는 다르다.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진지함으로 설복할 수 있는 힘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4. 전략적 사고가

선교 동원가는 전략가이어야 한다. 열정과 전략을 함께 가지기란 기질상 어렵지만 오늘 교회에서 필요한 동원가는 웅변을 토하는 열정가 보다는 교회 동원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필요한 전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선교동원이란 말을 일반화시킨 사람, 미전도 종족 운동, 개척선교를 위한 종족입양 운동, Perspectives과정을 개발한 랄프 윈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웅변가도 아니고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성경과 역사의 면밀한 연구를 통해 배우고 확신한 바를 믿고 글로 쓰고 실천하여 작금의 선교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5. 경계에 제한되지 않는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스스로 경계를 정하고 위축되는 경향이 많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는 식의 교육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교동원은 경계가 없다. 나이와 경륜과 선교경험과 신학공부 여부나 성별과 전혀 관련이 없다. 주변은 이런 것을 압박하나 진정한 동원가는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BETHANY

베다니 신학대학(원) 신입 및 편입생 모집

Bethany Divinity College and Seminary

*보수 복음주의 초교파로 운영되며 32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알라바마 주 정부 교육국으로부터 인가된 정규신학대학(원)입니다.
*Affiliate Status with ABHE
*On Campus(본교수업) 및 Off Campus(통신수업) 프로그램에 의해 강의하며 Distance Education 협회 회원입니다.
*크리스천대학 진학기준합격선임협회(SEAACS) 회원입니다.
*사립대학 진학기준합격선임협회(NAPNSC) 회원입니다.
복음훈련협회(ETA) 회원입니다.
*매해마다 200~250명의 목회 및 선교에 부름받은 헌신된 일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M.Div. 과정을 마치신 분은 소정의 절차를 따라 복음주의 독립교단(FCA)에서 안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베다니 신학교는…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입학원서(소정양식) *사진 2매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시 입학이 가능하고 학점제로 운영하므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 수업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중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졸업 세미나(3학점)와 겨울철 정기 세미나(4학점)가 있습니다.

학위 및 학과 과정

학과	학위	전공	이수학점	지원자격
	B.A.	종교문학	128	고졸
	B.Miss.	선교학	128	고졸
	B.C.C.	상담학	128	고졸
	B.R.E.	교육학	128	고졸
	B.C.M.	음악학	128	고졸
	B.Th.	신학	128	고졸

석사과정	학위	전공	이수학점	지원자격
	M.A.	종교문학	40	대졸(128 SC)
	M.Miss.	선교학	40	대졸
	M.C.C.	상담학	40	대졸
	M.R.E.	교육학	40	대졸
	M.C.M.	음악학	40	음대졸
	Th.M.	신학	64	신대졸
	M.Div.	목회학	96	대졸

박사과정: 종교철학박사 학위를 비롯하여 각 전공별로 박사학위 과정이 있으며 학위에 따라 36~64 학점을 이수해야 함.
D.R.E. / D.C.C. / D.Miss. / D.C.M. / D.Min. / Th.D. /Ph.D.

쉬메이크 박사, 총장
H.D. Shuemake:
Bible and Apologetics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 교수에게 문의하시거나
학교 웹사이트(Website)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빈 교수(D.R.E. Th.D.) 407-721-5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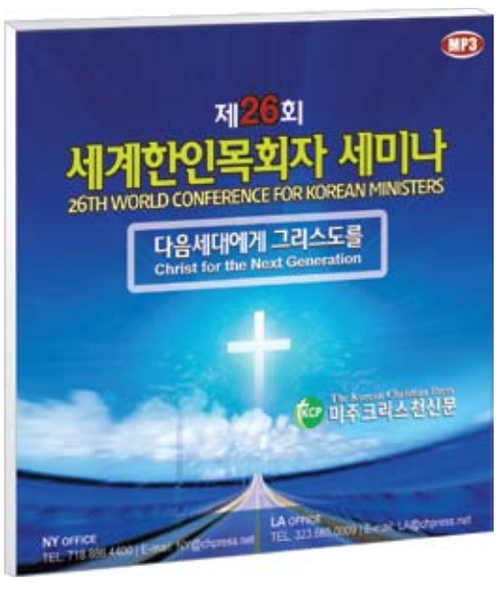
Website: http://www.bethanybc.edu

2573 Hodgesville Rd., Dothan, Alabama 36301
Chancellor: Dr. H.D. Shuemake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5월 2일부터 5일까지 라스베이거스 사우스 포인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세미나의 강의 20편 전체가 한 장의 CD(MP3)로 나왔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8명의 전문 강사들이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2세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시키며, 축소되어가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 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교육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7강의(목회자, 평신도 각각)와 3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특히 큰 호평을 받았던 평신도지도자 강의도 CD로 제작했다. 총 소요시간 40시간. 3개의 CD(목회자강의 2개, 평신도지도자 1개)로 묶어 가격은 30달러.
강사는 김홍도, 지용수, 소강석, 박재호, 황의영, 여운세, 송용걸, 이영섭, 김만형, 김상덕, 조일구, 홍민기, 송규식, 김혜천, 박헌남, 김승연, 장영춘 목사로 강의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뵟과 소금으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리플리 증후군과 진실"

"진실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짓이 진실을 무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산물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처구니없는 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진실을 그대로 믿기보다 거짓이라도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믿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영국에 대영 박물관에 짝퉁 셱스피어 작품인 '보티건과 로위나', '헨리 2세'가 전시되어있습니다. 이 작품을 쓴 사람은 윌리엄 아일랜드로 그는 어려서 학교를 중퇴하고 책방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환심을 살까 연구하던 그는 아버지의 소원이 셱스피어의 서명이 있는 셱스피어 책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가짜 셱스피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셱스피어의 서명을 연습하여 자기가 쓴 작품에 가짜 서명을 한 뒤 아버지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자기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고객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주고 대가로 받은 책이라며 아버지에게 그럴싸하게 둘러대고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윌리엄의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들이 쓴 가짜 셱스피어 책을 영국에 공개하게 됩니다.

셱스피어를 그리워하던 영국 온 국민들은 그 책이 미공개 작품이라 하여 열광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존경 받던 목사, 정치가, 왕족까지 가세하여 작품을 찬사하였습니다. 책이 진열된 윌리엄의 집은 연일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셰익스피어 전문가인 에드먼드 멀론은 셰익스피어 문서가 모두 가짜라고 발표 했지만 영국 국민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셱스피어를 그리워하던 국민적 정서인지라 오히려 인기가 더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연극 무대에 올려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윌리엄은 서명을 흉내 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가 셱스피어의 작품 햄릿을 셱스피어의 자필 원고로 써서 공개하였고 그 외 신앙고백, 미래의 아내에게 쓴 편지 등도 만들어냈습니다. 셱스피어는 작품 외에 사생활에 대한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았음으로 셱스피어의 자필 원고, 신앙고백서, 편지의 공개는 셱스피어를 갈망하는 영국 국민들에게 큰 흥미와 기쁨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윌리엄은 아버지께 자신의 거짓을 고백했습니다. 그 후 윌리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두 권의 책과 편지와 서명을 가짜로 만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10대 소년인 윌리엄이 썼을 리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희대의 의작(擬作) 사건은 10대 아이인 윌리엄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벌린 일이었다고 하니 놀랍기만 합니다.

정신과적인 공식 명칭은 '공상허언증' 즉 상습적인 거짓말 증상이라고 진단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는 '재능 있는 리플리'에서의 주인공 이름에 빗대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신 병리학자들은 이 병에 대해 자신이 바라는 세계만을 진짜라고 믿고,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허구라고 믿어버리는 증상을 호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특징은 자신의 세계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상이 높고 욕망이 강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평소에도 붕 떠있는 듯 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에는 무조건적으로 타인이 반기나 이의를 제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행동을 하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든 윌리엄의 헛된 의작 소동이든 화려하지만 그의 끝은 허무합니다. 또한 그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진실이 전해주는 아름다운 결말은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우리의 삶을 후회 없게 할 것입니다.

푸/ 른/ 초/ 장

노기송 목사
(뉴욕새예루살렘교회 담임목사)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1-6절

오늘날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왕따를 당하며, 멸시를 당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음에도 말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호세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심한 매질로 치신 상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찢고, 교인들을 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로 불미스럽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소 삶이 여러 죄들로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잊은 채 종교적 의식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해주십니다.

첫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1절)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숭배하며 혼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호된 매를 맞고 찢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BC721년에 앗수르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부터가 인간 중심이 된 인본주의요,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요, 하나님과 나와 섞여 있는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중심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세상도 함께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길 뿐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찢으신 자리를 다시 낫게 하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호되게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삼일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2절).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3절.)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매일 일정하게 새벽빛같이 비추어 주심을 알게 되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갈급한 삶에 충분히 적셔 주심을 알게 됩니다. 왜 호세아 시대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찢기움을 당하고, 매를 호되게 맞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혼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하고 버림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까지 빼앗겼습니다(호4:6).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는 잊음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까?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나 번제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제사, 그런 번제는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음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호세아를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고 음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 채,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나 번제를 드린다고 하니 그런 제사와 번제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참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교회생활 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교회생활 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주일성수, 수요예배, 금요예배, 셀 모임, 구역모임 등등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예배, 헌금, 봉사 등등 모든 종교의식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런 제사와 번제는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처럼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시다. 나도 모르게 세상과 나, 하나님 말씀과 내 주장, 하나님의 숭고한 뜻보다 복만 바라는 기복적인 나로 혼합되어 있음을 회개합시다.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나 혼합주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였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아십시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힘써 배웁시다. 성경 몇 번 통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 구절구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갑시다. 매일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알아가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십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보통,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힘을 써서 용기를 내서 시간을 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힘쓰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그 힘씀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참 본질이 있을 때 참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신앙의 본질이 없는 종교 의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내 이웃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전액장학생 선발 공고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이중언어
전액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자 : 석사, 박사 00 명
자 격 : 1. 이중언어(한국어,영어)자로 토플 iBT 88~89 이상인자
2. 최종학교성적이 3.7 이상인 자
3. 중생의 체험이 있고 소명이 있는 자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의 강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학대학 프로그램

학 위	프로그램	학 점
학 사	B.A.B.S.	128
석 사	M.Div	96
박 사	D.Min	42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의 계장
쉐퍼드대학교는 ATS 회원학교입니다.
쉐퍼드대학교
info @ 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신앙의 냉각화 현상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온 세계가 기후의 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지구의 온난화에 대한 토론이다. 지구의 온난화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던지 간에 지구의 기후는 변하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더 뜨거워진다. 이런 세계 기상의 변화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의 이상 기후를 두고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고한 것이었다. 현재 한반도 남해 연안까지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 중이어서 50여 년 후에는 고산악지대를 제외한 중부지방까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의 뚜렷한 사계절이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이 되는 '2계절 환경'이 도래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양식도 바뀔 것이다. 패션이 바뀌고, 식문화도 바뀌고, 농업도, 산업도, 환경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다. 기후의 변화에 대한 준비와 정책적인 변화가 없이는 재난이 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기후가 바뀌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것은 영적 기후의 변화이다. 신앙의 기후도 바뀐다. 신앙의 냉각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이 있다. 기독교가 먼저 꽃을 피우던 유럽과 서방세계에 무슬림들이 몰려온다. 세속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물질 만능주의 우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썩어가게 한다. 전세계적으로 종교 다원주의의 압력은 성도들로 타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개인주의적 신앙은 성도의 함께함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좀먹게 한다.

물론 외부의 공격과 변화도 무섭지만 가장 큰 위기는 바깥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부터 온다. 신앙의 냉각화는 지구의 온난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전 세계 교회를 찾아오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꽃을 피운 미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근에 바나리서치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국인들의 신앙의 변화를 분석한 바나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 가장 기독교적인 영향을 미치던 미국인의 신앙의 기후 역시 냉각화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인 중에 자신이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5명중에 4명 정도이다. 보고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에 5가지 영역에 있어서 눈에 뜨이는 변화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첫째로 교회 출석율의 감소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회 출석율이 9%나 감소되었다. 지금은 오직 47%의 성도들이 매주 교회의 활동에 동참한다. 둘째로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20년 전보다 8%가 줄었다. 이제 오직 18%의 성도들이 주일학교에 출석한다. 셋째로 자신이 성도임을 밝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30%에서 22%로 줄었다. 넷째로 성경을 읽는 것도 20년 전의 51%에서 46%로 줄었다. 다섯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도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 결혼과 장례를 제외한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31%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다.

신앙생활의 변화는 어떠한가? 중요한 신앙생활을 보이는 6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가 의미심장한 부정적인 변화가 왔다. 성경읽기는 주일예배 때가 아닌 주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약 5%의 감소로 40%만이 성경을 읽는다. 자원봉사는 8%가 감소되어 오직 19%만이 교회를 섬긴다. 어른 성경공부나 주일학교의 출석은 8% 감소해서 이제는 15%만이 참여한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교회출석은 9%가 줄어서 이제는 40%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 가장 큰 변화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1991년에는 24%였지만 지금은 37%나 된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50%이상 증가되었다.

신앙의 내용은 어떠한가? 신앙의 내용도 점점 세속화 되었다. 중생했다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은 5%가 늘어서 지금은 40%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는 전지, 전능, 완전한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세계를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9%가 줄어서 지금은 67%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다. 1991년도에는 46%가 성경은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믿었는데 지금은 오직 38%만이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신앙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여성의 신앙의 변화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한 기관은 아무도 없었다. 바나리서치에 의하면 여성들은 14개의 항목 중에서 10개의 변화를 보였다. 그 중에서 8개는 부정적인 변화이었다. 여성의 교회출석은 무려 11% 줄어서 지금은 44%만이 교회를 출석한다. 성경읽기는 10%나 줄어서 오직 40%만이 주중에 성경을 펼친다. 주일학교나 성경공부의 참여는 7% 줄어서 17%만이 참여한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교회활동의 중추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9%나 감소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여성들의 봉사활동이 31%나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오직 여성들이 증가한 것은 교회를 점점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이다. 무려 17%이나 증가했다. 이 조사의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다. 여 성도들의 신앙도 냉각되어진다.

남성의 교회참여도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교회출석은 6% 감소해서 36%만이 출석을 한다. 주일학교와 성경공부는 남성중에 8%가 줄어서 오직 13%만이 출석을 한다. 자원봉사는 6%가 줄어서 오직 18%만이 섬긴다.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오늘 미국 남성의 39%가 교회를 6개월간 출석하지 않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되었다. 전도해야 한다는 각오도 5%가 줄어서 23%만이 영혼구원에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성경을 정확무오한 진리임을 믿는 남성 성도들은 10%나 줄어서 33%가 되었다.

인종적인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백인과 흑인과 히스패닉을 조사했다. 불행히도 아시아인들은 제외되었다. 백인들의 주일출석은 9% 감소되어 39%, 주일학교참여는 9% 감소되어 23%, 성경읽기는 5% 감소되어 37%, 자원봉사는 8% 감소되어 18%,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15% 증가되어 40%나 이른다.

히스패닉의 신앙의 변화는 가장 크게 감지되었다. 교회출석은 21%나 감소되어 33%, 주일학교나 성경공부는 19%나 감소되어 이제는 오직 9%, 성경읽기는 25% 감소되어 오직 30%, 교회를 떠나서 비활동적인 신앙인이 되는 사람들은 20%나 증가하여 40%에 이른다.

그나마 통계적인 영적기후의 냉각을 막는 것은 흑인들의 신앙이다. 교회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은 8%나 줄어서 30%, 성경에 대한 신앙은 11%나 줄어서 77%가 되었다. 그래도 성경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백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서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도 가장 낮은 편이다.

한인들이 이 조사에 포함이 되었으면 어떠했을까? 과연 우리는 신앙의 열기와 열정이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자신할 수 있을까? 단순한 신앙생활의 경향을 말하지 않고 자세한 숫자를 제시한 것은 피부로 느껴보기 위함이었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의 후예들의 모습의 변화는 세계교회의 영적인 냉각화를 대표한다.

신앙의 냉각화는 말세의 가장 큰 징조이다. 성경은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셨다(딤후3:1-5). 주님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다(마24:11-13). 요한계시록에 보이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계3:15)이 바로 현대교회의 모습이다.

〈7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사람에게는 수 많은 죄가 있는데 죄는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는지요?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죄를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지요?

A: 예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의 21가지 이상의 추악한 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크게 두 종류의 죄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 경건이요 두 번째가 불의입니다.(롬1:18)

불 경건은 "아세베이아"란 헬라어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즉 "종교적인 죄"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롬1:21-25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란 "아디키아"란 헬라어로 "인간에 대한 죄" 즉 "도덕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롬1:26-32절에서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즉 불경건이 인간에 대한 부도덕 즉 불의를 낳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사람의 도덕적 행위가 깨끗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첫 부분인 1-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 하나님은 없다

5-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후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 즉 불경건한 자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 즉 온갖 불의를 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즉 경건치 않음을 모든 죄의 근본으로 알고 영어 대문자로 SIN이라고 표현하고 그로 말미암은 불의의 온갖 죄악을 소문자로 sins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죄 즉 불경건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godless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큰 죄입니까? 엄연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데 없다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나쁜 자식이 있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패륜아, 부랑아라고 말합니다.

불경건한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이 관계를 맺기를 거부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없이 살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요 영적인 죄이며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과 연관시켜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불 경건입니다.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 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1년 가을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 출 서 류 ◇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❹ 신앙고백서
❺ 명함판 사진(2"×2")2매
❻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❶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❷ 원서접수마감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6시
❸ 입 학 시 험 : 2011년 9월 10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❹ 영 성 훈 련 : 2011년 9월 12일(월) – 9월 14일(수) 오후 8시
❺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다트키 마르와리족(Dhatki Marwari)

다트키 마르와리족은 전통적으로 힌두카스트 제도의 불가촉천민(untouchable)로 간주된다. 1947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로 분리됐을 때 수백만의 무슬림, 힌두교인의 난민들이 발생했고 대부분의 마르와리 힌두교인들은 인도로 이주했다. 슬프게도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된 후에도 다수의 무슬림들과 소수 힌두 마르와리인 사이의 오래된 적대감은 감소되지 않았다. 다트키 마르와리인들이 사는 파키스탄 남동부의 신드주 아래쪽 타르파카(Tharparkar)와 상가르(Sanghar)지역은 1965년부터 1971년까지 격심한 국경분쟁의 현장이었다.

다트키 마르와리어로 불리는 이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안 어족의 일부이며 빌(Bhil)언어의 아그룹(sub-group)에 속한다. 마르와리어는 구어이지만 가끔씩 신문에 쓰여지기도 한다. 많은 마르와리인들은 신드어를 적당히 알아서 두개의 언어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마르와리인의 대부분은 농부 혹은 이주하는 농사일꾼이며, 고생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여분의 수입을 벌기 위해 시절을 따라 농작물을 따라서 이주한다.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서는 관개사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몬순의 비는 이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의 주요 식용작물은 밀과 기장이며 쌀, 목화, 옥수수도 재배한다. 도시에 사는 몇 안되는 마르와리인들은 인쇄업이나 옷감제조업에 종사한다.

마르와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두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 두 가정의 결합으로 인식된다. 대부분의 결혼은 신랑과 신부의 사회적 지위와 카스트를 신중히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힌두교인들인 이들에게 있어서 브라만은 가장 높은 카스트이고 대부분의 마르와리인들이 속해 있는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카스트에서 제외된 최하층 계급에 대한 불가촉천민이라는 말대신 쓰이는 공적인 호칭)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시골의 젊은 부부들은 신랑의 가족들과 함께 산다.

마르와리 여성들은 긴 패티코트 형식의 치마를 입음으로써 먼 거리로부터 쉽게 확인된다. 마을의 어른들은 모든 상황에서 그들에게 전통적인 의상을 입기를 강요한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은 도회지로 나가면 다른 파키스탄 여성처럼 넓은 바지(샤왈)와 긴 상의(까미즈)로 바꾸어 입어서 다른 사람들과 잘 혼합한다.

많은 마르와리인들은 모욕과 학대를 받으며 노예로서 지배를 받아왔다. 최근 신드 주의 시골지역에 보내진 파키스탄의 특별조사반은 파키스탄 지주에 의해 유지되는 사설감옥을 발견하고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종종 사슬에 묶여 있기도한-하리스(haris:Marwari slaves)들을 석방했다. 일련의 불시단속에서 기자들과 동행한 인권위원회 자원봉사자들은 천 여명의 하리스들을 석방했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24년 동안이나 갇혀있기도 했다. 이미 강제노역에 의해서 수배나 갚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와리인들이 오래전에 자기들에게 빚진 부채 때문이라고 지주들은 그들의 행위를 변명했다. 지주들은 이런 행위를 '소작인과 지주의 협력'이라고 주장했다.

신앙

마르와리인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과 소수의 힌두교인 사이에 심한 종교적 갈등이 존재한다. 힌두교인들은 힌두 신 크리쉬나(Krishna)의 탄생일을 축하한다. 이들은 무생물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을 반영하는 정령숭배적인 의식을 행한다. 모든 마르와리인에게 다소간의 정령숭배적인 관습이 잔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키스탄에서의 이슬람의 세력과 영향력은 다른 어떤 곳에서 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슬림에게도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필요한 것들1925년에는 신드지역에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대로 보전되고 양육되지 못했으며, 현재에는 마르와리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 소수의 선교사들이 마르와리인들 가운데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다 헌신된 기독교인 일꾼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조사자들은 만일 메그화르인들에게 빨리 접근하지 않는다면 10년 이내에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과 예수영화는 마르와리 언어로 번역됐으나 기독교 방송은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영국 젊은이들의 폭동, '아버지 부재' 때문"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영국의 폭동 사태와 관련, "서구사회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훈육해야 한다"며 "이것은 단지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영국 폭동은 십대와 젊은이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이번 달 초부터 거리를 점령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것은 물론, 불을 지르는 등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스카이뉴스네트워크는 "체포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며, 방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11세 청소년이 약탈혐의로, 18세인 첼시 이브스는 경찰차에 벽돌을 던진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22세의 한 남성은 폭동 중 68세의 노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는 TV 인터뷰에서 공격을 주도한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비난했다. 카메론 총리는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된 폭동의 문제는 책임감, 적절한 양육과 훈계,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심각한 부재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포커스온더패밀리 가족구성연구 디렉터인 글랜 스탠튼 씨는 "고삐 풀린 영국의 젊은이들에 의한 파괴는 가족 내의 도덕성 몰락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런던의 상황에 대해 "아버지의 부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를 일으킬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양육 서적인 "Secure Daughters, Confident Sons"의 저자이기도 한 스탠튼 씨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책임감과 (행동의) 경계를 가르친다고 말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폭력성을 다스려야 하는지 배운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아버지들이 남자 아이들과 젊은 남성들의 폭력성을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친사회적인(Pro-Social) 경향이 점차 매우 반사회적(Anti-Social)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이건 매우 위험한 방향"이라고 경고했다.

스탠튼 씨는 더 구체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편모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두 명이 해야 할 역할을 한 명이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탠튼 씨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엘에이 폭동이나 카트리나 폭풍 당시가 그와 같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제20차 세계감리교대회, 남아공 더반에서

제20차 세계감리교대회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됐다.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치유를 위하여(Jesus Christ: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를 주제로 70여개국 2천여명이 참석한 대회는 총회(the Council meeting)와 대회(Conference)로 나뉘어 열렸다. 대회 전후로는 감리교 청년대회와 세계감리교 여성대회가 진행됐다. 5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세계감리교대회는 지난 19차 대회를 한국 서울 금란교회에서 연 바 있다.

세계감리교회협의회(World Methodist Council)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는 5년간 WMC를 이끌어 갈 회장에 브라질 로크만 감독, 부회장에 미국 데이비스 감독을 선출했고, 회장단과 상임위원장 8명씩을 뽑았다. 조지 프리먼 총무 후임으로는 남아공 이반 아브라함 감독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전 총무인 이원재 목사는 회장단에, 감리회신학대학교 박종천 교수는 신학교육위원장에 각각 선출됐다. 이밖에 총회에서는 네팔감리교회, 탄자니아감리교회, 감비아연합감리교회 등을 새 회원으로 승인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 그 실현도는?

오는 8월 28일 열리는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애틀랜타 태생 마틴 루터 킹 Jr. 목사의 기념관 개관식을 앞두고, USA투데이와 갤럽이 공동으로 "킹 목사의 꿈은 실현됐는가?"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 질문은 과연 킹 목사가 꿈꿨던 것처럼 "인종간 차별은 철폐됐는가?"이다. 설문에 응한 백인(90%)과 흑인(85%) 모두 "인종간 차별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인종에 따라 느끼는 "미묘한" 혹은 "여전한"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전역 1,391명의, 히스패닉계를 제외한 백인과 흑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8월 4-7일 실시됐으며, ±4%의 오차가 있다. 1963년 갤럽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 백인들은 "흑인들이 백인들만큼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같은 질문에 대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78%)의 백인들이 동일한 대답을 내놨다. 인종에 관계없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종류의 직업이라도 적합한 자격과 능력만 있다면, 직업을 갖는 데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흑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같은 질문에 1963년 당시 23%의 흑인들만이 "같은 조건에서 백인과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약간 증가한 3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59%의 흑인들은 고용시장에서 여전한 선입견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같은 입장차는 고용시장의 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데 고스란히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의 흑인들은 정부가 소수인종들이 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백인들은 5명 중 1명만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백인 10명 중 3명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공군의 위생병인 코디 크자카(21세, 백인) 씨는 "모든 분리(차별)은 사라졌다. 이제 인종은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럴 여지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플로리다 샌포드에서 주택 페인트업을 하고 있는 조지 에반스(56세, 흑인) 씨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인종 차별은 어느 정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법원 시스템에서. 몇몇은 이전보다 아주 미묘하긴 하지만, 다른 몇몇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백인과 흑인의 결혼에 대해 1968년 갤럽 조사에서 백인들 중 17%만이 서로 다른 인종간 결혼에 찬성했고, 흑인들은 56%가 찬성했다. 조사가 있기 1년 전, 미 연방최고법원에서는 버지니아 주에서 인종간 결혼을 금지한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는 버지니아 주 외에도 38개 주에서 인종간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상태였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문제는 언제나 있는가?"라는 질문에 1963년 이후 백인들의 대답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당시에는 44%가, 이번에는 45%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흑인들은 부정적 전망이 증가했다. 1963년 흑인 70%는 "결국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26%는 "항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흑인 55%는 이 둘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조사 결과에서 보듯 인종에 관한 문제는 예민하면서도 흑백간 미묘하지만 확연히 다른 의견을 드러낸다.

한편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미국인들 가운데 70%는 그의 대통령직 수행기간 중 미국 내 인종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답했지만, 현재는 35%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41%는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했다.

"교육수준 높을수록 교회 더 자주 나간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통설과는 달리 종교행사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연구진이 밝혔다. 미국 네브래스카링컨대학 사회학과의 필립 슈와델 교수팀은 미국 사회의 변화추세를 조사해 온 '종합사회조사'(GSS)에 응했던 수천명의 응답자 가운데 전국적인 샘플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종교연구리뷰'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종교예식에 참가하는 비율도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경을 읽을 공산도 9%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떤 종교에서 탈퇴하거나 완전히 떠나는 행위는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음주의 계열이 아닌 주류 개신교 교파 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떤 특정 종교만이 '유일한 진정한 믿음'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으로 연계돼 있음도 보여줬다.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한 교회예산-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암초, 불량율-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 나성 북부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휄로쉽 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 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베델한인교회, 미주 평안교회, 베델 한인교회, 베버리 장로교회, 브리지교회, 샌디에고 아름다운교회, 성림한인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시온연합감리교회, 아버지마음교회, 아름다운교회, 얼바인 침례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예삶교회, 은혜평강교회, 은혜한인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함께하는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필라한디옥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MnC, ITMC, PGM, ENJOY&TV, HKM, SILK WAVE MISSION, ThatsMEonTV.com, KBS,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량율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량율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량율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마진 없는 홀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료배달: 남가주 전역($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세)

Special CD/DVD 제작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설교 등을 원본만 보내 주시면 편집, 제작, 복제, 표지 디자인에서 팩케징까지 헐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를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설교, 찬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량에 관계없이 교회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책임집니다. 단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망)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월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봉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안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적격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시 40-45장/hr,
- 효율적 개별 잉크 절약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원터치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il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쉽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서플라이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경쟁기종 중 가장 빠른속도,
가장 낮은 에러율 및 고장율의
ILY Enterprise사 제품
- 캘리포니아 현지생산
- 확실한 품질보증
- 신속한 A/S 및 최상의 조건

설교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CA 92705
LA 1961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

종교다원주의 연구 (2)

조진모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Ph.D)

종교다원주의 등장의 역사적 배경(상)

종교다원주의 ‘인간중심’ 방법론 선택
이신론, 결국 인간 자율성 확인시켜
인간이성 사용 인식론·계몽주의 발생

‘인간 중심’ 방법론

종교다원주의가 선택한 접근 방법은 ‘인간 중심’이었다. 모든 종교의 가능성을 인간에게서 발견한다는 뜻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가 인간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본다. 종교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경험이 종교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 이유가 성경의 계시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란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종교다원주의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이다.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종교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의 출발점이었던 이 당시,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후대에 전수시킨 신학을 발전시켜 전통을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한편에서는 계시신앙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서양문화를 종식시키려는 강한 움직임이 있었다.

생각의 변화

근대는 다양한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다음 세 질문에는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지녔던 일반적 생각이 잘 함축되어있다: 1)무엇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가? 2)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3)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절대적 진리는 어떤 것인가? 그들이 초월적 절대자를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근대에 들어와 그 생각이 어떻게 변했을까? 근대인들이 지녔던 생각의 특징은 무엇보다 ‘인간 중심’이었다. 17세기에 일어난 과학의 탄생은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런데 근대 과학의 영향력은 더욱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 이상의 것이었다. 과학은 철학, 신학 등 다른 지식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의 혁명이 곧 지식 영역의 혁명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근대 과학의 정신적 기초인 합리주의(合理主義; Rationalism)의 특징에서 발견된다. 합리주의는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개인의 본능 또는 느낌을 거부하고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중요시한다. 근대 이전에는 이성을 신적 계시와 초인간적 질서를 발견하는 도구라고 여겼다면, 근대 과학은 인간이 이성을 통하여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구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근대를 지배하게 되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 되면서 기독교는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였다.

인간의 자율성

처음 근대 과학이 출현하였을 때에는 신앙과 긴장관계를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초기에 과학적 기술의 변화를 주도한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과학을 신학과 철학으로부터 분리하였다. 그러나 그가 과학을 종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하려거나, ‘인간 중심’의 시대를 도래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것은 결코 아니었다. 즉 문제의 근원은 과학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책임은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에 대한 지나친 긍정적 태도와 신앙을 자율성으로 대치한 인간에게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신론(理神論, Deism)이 등장하였다. 신앙과 분리된 과학에 집중하던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Issac Newton, 1643-1727)의 노력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신론자들은 근대 과학이 지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계시하신 법칙을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세상을 커다란 기계 덩어리로 보았던 근대 과학의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섭리는 부정한 것은 그들이 인간의 위치를 높이려는 태도 때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결국 이신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와 같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신론자들은 기적과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근대의 기독교는 더욱 ‘인간 중심’으로 전락되어갔다.

이성 사용의 확대-‘인간 중심’의 굴레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근대 과학은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때의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근대인들은 이성의 사용을 더욱 확대하였는데, ‘인간 중심’을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더욱 자율성을 추구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하나는, 인간이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면 반드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인식론의 대두이다.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5-1650)에 의하여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심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한 것은 이성에 대한 확실성이 모든 지식의 체계가 된다는 역설이다. 그는 이성을 비이성적인 요소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고 냉정한 자세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는데, 결국 그가 제시한 새로운 인식론도 ‘인간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몽주의(啓蒙主義, Enlightenment)의 출현이다. 계몽주의는 18세기에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진보적 사상운동으로서, 이성을 통해 삶의 기초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성을 통해 발견한 보편적 진리와 법칙을 실천함으로서 해결할 것을 권장하였다.

나아가서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신앙적 독단, 그리고 봉건적 구습을 과감히 타파할 것을 부추겼다. 프랑스 혁명(1789-1799)은 이성의 힘으로 가능하였던 사건이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보다 더 ‘인간 중심’의 사회를 위한 단결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신앙의 1세대가 가진 열정과 야성을 유지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의 세대는 신앙의 열정을 잃은 세대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신앙의 냉각화의 주범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다. 나의 신앙의 냉각화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들을 차갑게 하고 냉냉하게 만든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신앙의 냉각화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식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의 모델이 된다.

영적 기후의 반전은 결국은 나 자신 한사람 한사람이 신앙의 열정을 되찾는 것으로 부터 올 것이다. 신앙의 냉각화를 막고 영적 기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철저한 회개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결단(마24:13)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계속〉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4부예배: 오후 1:45 (한어, 청장년)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228-9540,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목사 : 송규식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어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www.gracewave.org
Tel.(714)699-0210, 714-699-0210(Cell)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헌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찬 양 예 배: 오후 3:30
Tel.(213)413-1600, (F)(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door.org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 (월-토)
Tel.(213)388-7101,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23)939-7323, (F)(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90019 (Pico+Fairfax)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다우니제일교회

담임목사 : 이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수 요 일 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토)
교육부주일예배: 오전11:00
Tel.(562)861-1004, Fax.(562)923-6705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금 요 예 배: 저녁 8:0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받으신 후원자나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el.(213)210-6890 / Fax(32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와 상담: 화-목 오전 10시부터 -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 박성호
주 일 1부 예 배: 오전 8:00
주 일 2부 예 배: 오전10:30
중,고등부(유년): 오전10:30
한어젊은이예배(KM): 오후 1:00
EM 영 어 예 배: 오후 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www.churchmannam.org
Tel.(818)882-9191, Fax.(818)882-9777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15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ijoopeacechurch.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방주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동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교사)
주일 2부예배: 오전 9:00(다민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대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5:00(찬양)
새 벽 예 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916)482-8800,4960/ Fax(916)482-5571
Web-site : www.arkmissionchurch.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청,장년영어예배: 오전11:30
오후 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 대 예 배: 오전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626)339-6177, Fax.(626)967-3078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 일 대예배: 오전11:00
영 어 예 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행복만들기기도회: 오전 6:00(토)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재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00
영어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
Tel.(818)363-5887, Fax.(818)368-9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 정병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찬 양 경 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 오전 5: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Tel.(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명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 일 학 교: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토)
Church: (858)571-5509 / home: (858)384-6546
2130 Ulric St., San Diego, CA 92111
myungk153@yahoo.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 (화-토)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오전5:30(월-토), 6:00(토-주)
Tel.(714)891-2029 / Fax.(714)373-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3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4272, Fax(213)384-8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최병수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주일 4부: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9:00,10:30
www.inlandchurch.org
Tel.(909)622-2324, Fax.(909)6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4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아침예배: 오전 6:3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창 대 교 회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어)
중고등부성경공부: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 요 찬 양: 오후 7:30
www.gpc.com
Tel.(909)388-2940, Fax(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6.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4) : 놀라운 생명체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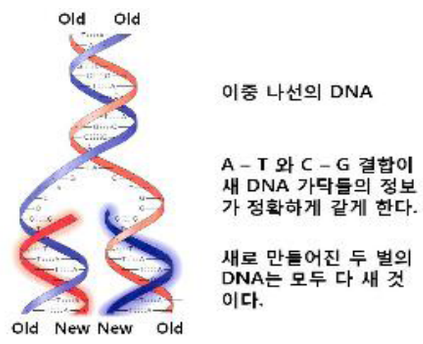
30억 게놈, 60억 일반세포 DNA 가진 인간...과학 통해 창조증언
또 새로운 세포 탄생엔 DNA 정보와 생체기계 수백 가지 있어야

생명체의 정보 저장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능력은 사람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난자나 정자의 유전 정보의 총량 즉 게놈(genome)은 4가지의 DNA(A, T, C, G) 약 30억 개로 되어 있다(난자와 정자를 제외한 일반 세포들은 한 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으므로 60억 개의 DNA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30억 개의 정보를 빈칸 없이 MS-Word로 글자 크기 10, 한 줄 간격으로 쓴다면 약 100만 페이지 분량이며 성경책(1754 페이지) 570권 분량이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정보가 약 1m 길이의 이중 나선 DNA에 들어 있다. 보통 세포의 지름이 약 0.01mm이고 DNA가 들어 있는 핵은 세포 공간의 약 10분의 1이므로 1m의 DNA를 핵 속에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빽빽하게 접어야 할까? 더구나 일반 세포의 경우는 DNA가 60억 개이므로 거의 2m 길이의 이중 나선 DNA가 들어 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나게 예를 들면, 만약 직경 2mm의 쇠 구슬을 녹여 DNA 굵기의 철사를 뽑는다면 지구를 33번 감을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양의 DNA 정보는 자동으로 복제되어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 예를 들면, 수정란이 자라서 2개의 세포로 될 때 수정란에 있던 1벌의 DNA 정보는 정확하게 복사되어 2벌이 된다(그림). 이 때 재미있는 것은 1벌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벌 모두 다 새 것이다. DNA는 염기 쌍들(A는 T와, G는 C와)이 짝을 이루어 마치 줄사다리처럼 겹줄(이중)로 되어 있는데, 복제될 때는 A-T, G-C의 짝이 끊어져 독립적인 두 줄이 된다(그림 2).

이 때 각 줄에 있는 염기들은 짝을 이루지 않은 독립된 상태(A- , T- ,G- , C-)로 존재한다.



이중 나선의 DNA

A – T 와 C – G 결합이 새 DNA 가닥들의 정보가 정확하게 같게 한다.

새로 만들어진 두 벌의 DNA는 모두 다 새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단위 염기 들을 짝지우면 새로운 각 줄은 다시 처음과 같은 겹줄(이중) 구조가 된다. 여기서 한 줄은 원래 있던 것이고 다른 한 줄은 새로 생긴 것이다. DNA는 언제나 A-T, G-C 쌍을 이루기 때문에 새로 생긴 두 DNA는 똑 같은 정보를 갖게 된다.

결국 생체 정보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이 복사되어 DNA 가닥수만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처음부터 있었던(창조된) 것이다.

생명체만 스스로 자기와 똑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 자기와 같은 로봇을 만들지 못한다. 로봇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부품을 만들어 자기 모습을 닮은 또 다른 로봇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진화론에서처럼 저절로 생긴 물체가 그런 능력을 가질 것이란 생각은 지나친 상상이다.

그러나 세포를 보라! 새로운 세포를 탄생시키는 데는 DNA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체기계(단백질 혹은 효소) 수백 가지가 있어야 세포가 필요로 하는 부속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DNA 정보를 읽고 다루는 데만 50여 종류의 생체기계들이 필요하다. 이 생체 기계들은 DNA 구조에 붙어 정보를 자세히 읽어내야 하므로 사실상 각각의 생체기계들 자체에도 이미 DNA(A, T, C, G) 구조의 미세한 부분까지를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맨 처음에 그 생체기계들이 없었다면 DNA가 있었다 해도 그 DNA는 의미 없는 화학물질일 뿐 아무 정보도 아닌 것이다.

세포는 지휘자도 없는데 어떻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스스로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빠르게 복사할 수 있을까? 또, 세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속품들을 스스로 만들거나 수집하여 다음 세대를 만드는 신기(神奇)한 능력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동식물들이 다 그런 신기한 과정을 거쳐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DNA와 각종 생체기계들 속에 처음부터 들어 있던 정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오직 성경만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기원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창 1:11-1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은, 종류대로 자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그 정보들을 읽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수천 가지의 (정보를 가진) 다른 생체기계들을 창조 때부터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요1:3).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롬 11:36).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골1:16). 엄청난 양의 독특한 정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생명이신(요14:6) 창조자의 최대 걸작품임을 과학자들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다.

스캇 브래너 "신사도개혁운동 동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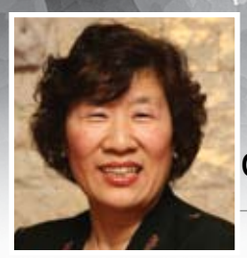
찬양 사역자로 널리 알려진 스캇 브래너 목사(레위지파 미니스트리 설립자 및 디렉터, 사진)가 최근 신사도 개혁(The New Apostolic Reformation) 운동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스캇 브래너 목사는 신사도 운동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스캇 브래너 목사는 먼저 "저는 '신사도 개혁' 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 운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배신학(Dominion Theology)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나 통제보다는 스며드는 영향"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세상에 스며들고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스캇 브래너 목사는 신사도 운동의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 즉 환원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먼저 "초대 교회 사도들의 직분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다"고 하고, "마지막 때 사도의 직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정경의 작성은 종결됐다"고 하고,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대등한 권위를 가진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스캇 브래너 목사는 "저는 순회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다양한 교단의 교회나 기독교 사역 단체에서 사역해 왔다"고 밝히고, "그렇게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들의 특정한 믿음이나 가치에 항상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사역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영혼의 바이러스퇴치 프로그램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에 회로를 방해하는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바이러스의 강약에 따라 본래의 작동 기능에 많은 장애를 받거나 심하면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리게 되는 불상사를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정말이지 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죽이려 침범하는 영혼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마음 주위에 진을 치고 있다가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필사로 방해하며 호시탐탐 마음 안에서 땅굴을 파댑니다. 자존감을 뒤흔드는 가장 큰 영혼의 바이러스는 자신의 부족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수치감입니다. 죄의식, 좌절감, 열등감 등으로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어 염려하거나 불만스러운 마음을 오히려 합리화하여 화를 냄으로 과격한 폭력으로 대처하여 혈기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19-24절 사이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5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두 아내의 장막에 거하여 가축을 치는 아들 야발과 악기를 잡는 유발,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두발가인과 딸 나아마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내를 불러놓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해 소년을 죽였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는 자를 마구 죽였다고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 양심의 가책은 고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나는 77배나 벌을 받아야겠지. 하나님이 어디있냐'고 비아냥거리는 교만의 극치 노래입니다. 과연 생명의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잔혹한 힘을 자랑하는 그의 사악한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동물만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 저주받은 상태임이 뚜렷이 보여집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잔악한 흉악당들의 모습이 이미 두 번째 인간 가인에 이어 라멕으로 이어져 망가진 모습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내 영혼을 잠식해오는 모든 바이러스들이 더 커져 마음의 시스템이 점점 다운(download)해져서 내 안에 인간스러움을 잃기 전에 정신 차려 경각심을 가지고 소멸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내 영혼의 모든 바이러스들을 완전 청소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작동케 하는 완전 바이러스 퇴치제입니다. 바이러스들을 제거한 후에 하나님 형상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치하는 마음의 프로그램은 하나님말씀입니다.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삶속에 뿌리 내리어 체질화가 일어나면 점차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내 마음의 시스템을 다스리어 나로 인하여 주위가 점차 천국화하며 땅 끝까지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응철
주 일 낮 예 배: 오전11:00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수 요 기 도 회: 오후 7:3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11:00
삼 일 기 도 회: 오후 8:00(수)
새 벽 기 도 회: 주일 6:00
주일학교 예배: 오후11:0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 유
주일아침예배: 오전 11:00
오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eda, CO 8000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
Tel.(610)222-0691,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운
주일 1부예배: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예배:오전10:15(영어)
주일 3부예배:오전11:30(한국어)
수요찬양예배: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 엘 교 회

담임목사 :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 예 배: 오전 10: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 예 배: 오전 11: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6:0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00
대 학 청 년 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한어)오전 11시
유치, 유년부: 오전 10:00
Tel.(508)43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 이영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10:00
주일 3부예배 :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12:50
Tel.(410)337-9448, 882-0181, Fax.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30
수요찬양예배: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6:00(월-금)
토요일: 오전6:30
Tel.(206)527-0981 /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 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금 요 철 야: 오후 8:00
새 벽 예 배: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 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하태수
주일1부예배: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오전11:00
주일저녁예배:오후 7:30
Tel.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2:00
주일 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 요 기 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김성한
주 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 요 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 수 교 회

담임목사 :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목 요 찬 양: 저녁 8:00
www.ljkc.org
Tel.(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예 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열린)
Tel.(253)535-6207,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수명
1부 영어예배: 오전 9:30
주 일 낮 예배: 오전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토)
Tel.(253)536-6675, Fax.(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2:00
수 요 예 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5:30 (토)오전6:00
Tel : (860) 643-4738 Fax : (860) 647-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하와이지역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 기 도 회: 오전 5:30 (화-토)
Tel ,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창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어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오전5:30(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 김순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557-1778/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 요 예 배: 오후 7:00
금 요 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캘리포니아 주 동성애관련 SB48법안 반대청원 위한 유권자 등록 시작

지난 7월 14일 캘리포니아 주 내 공립학교 킨더가튼부터 12학년 교과서에 동성애 및 모든 동성애 행동들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는 SB48 법안 반대청원을 위한 유권자 등록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SB48 법안을 뒤집으려면 75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반대 청원을 해야 하는데 주민은 캘리포니아 주에 유권자등록이 돼 있어야한다. 만약 SB48법안 반대청원이 유권자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캘리포니아 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적하는 소돔화가 되는 우려를 낳게 된다.

SB48법안 반대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http://stopsb48.com/get-involved/sign-the-petition/를 방문해 청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서명해서 다음 주소로 보내면 된다.

Stop SB 48 Petition Processing/660 J Street, Suite 250/Sacramento, CA. 95814 〈박준호 기자〉

제 4회 다민족글로벌콘서트에는 20여 민족 교회가 참가했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제 4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 20여 민족 400여명 참가

열방의 부흥을 위한 제 4회 글로벌 다민족 콘서트가 지난 21일 저녁 글로벌다민족선교회(GIM,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윤명 목사) 주최로 산호세 나사렛포인트처치(The Point Church of the Nazarene) 대성전에서 열렸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67:3)라는 주제로 20여 다민족 교회 커뮤니티 400여명이 미국과 열방의 재 부흥을 소원하며 모인 이번 콘서트는 다민족 하모니를 이루며 화목과 결속을 가져왔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괄목할 관점은 미국 다민족 대형교회인 Jubilee교회와 Abundant Life Christian Fellowship교회, The Point church, Bethel church of San Jose, Concord Parkhaven Baptist 교회가 중심이 돼 한국교회를 비롯한 아시아권, 라틴, 이프리카 등의 20여 민족이 한자리에서 모든 열방의 부흥을 소원하며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임마누엘교회, 세계선교침례교회, 실로암교회, 크로스웨이교회, 뉴송교회가 참가했다. 개회 시작을 알리는 찬양은 베이지역의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 50명으로 구성된 G2M의 "Korean Drum", "Rise Up"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여러 민족의 뜨거운 환호를 격찬을 받았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하와이 Praise댄스팀의 워십 찬양후 Doug Stevens 목사(아리조나 투산 교회 담임)와 로리 쿠퍼(Concord Bethel Baptist Church) 독창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는 대회장 정윤명 목사(월넛크릭 G.I. M교회담임)의 환영사에 이어 박노수 목사(한국 나사렛교단 증경총회장)의 개회기도와 Greg L. Gates 목사(The Point church of the Nazarene)의 메시지, John Calhoun 목사(북가주 나사렛교단 감독)의 축도 순이 있었다.

〈10면으로 계속〉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 미주투어공연

"희망의 노래로 위로와 감사전달"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 미서부 투어 성료

월드비전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2011년 미 서부투어가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8일 저녁 7시30분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린 마지막 날 공연은 수많은 인파가 몰려 통로에까지 앉아야 할 정도로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1부 은혜의 성가, 2부 즐거운 노래, 3부 희망과 나눔에의 초대, 4부 한국전통음악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합창단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선 뜨거운 박수가 아낌없이 울려 퍼졌다. 이날 공연은 '앞으로', '금강산', '태극기' 등 동요메들리를 앙코르 곡으로 부른 후 '우리의 소원'을 이날 모인 청중들과 함께 부르며 마쳤다.

한편 이날 인사말을 전한 김영길 목사는 "세계를 다니며 위로와 감사를 전한 선명회 합창단의 희망의 노래 속에 새 희망과 소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은 1960년 8월 창단해 연간 90회 이상 연주회를 가져왔다. 지난 8월 6일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를 시작으로 미서부투어를 해온 본 합창단의 남가주공연은 16일 샌디에고 한빛교회와 17일 ANC 온누리교회에서 각각 열린 바 있다.〈박준호 기자〉

인터뷰

광복 66주년을 회고하며... 박영창 목사

부친 고 박관준 장로 '1945년 8월에 광복되리라' 음성 들어

광복 66주년을 맞은 교민사회는 각 단체마다 광복절 기념 예배와 행사들을 갖고 광복의 기쁨을 되새겼다. 본지는 일제식민지와 광복의 기쁨을 체험한 항일투사의 자손 박영창 목사를 만나 보았다.

박영창 목사부부

박 목사의 자택에 들어서자 결혼 72주년을 넘긴 박영창 목사(97세)와 이정애 사모(92세)가 반갑게 맞아 주었고 홀을 가득 메우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액자와 이승만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한국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듯 했다. 1939년 동경 유학 중 부친(고 박관준 장로)과 함께 일본제국 중의원 국회의사당에서 신사참배반대 항의 경고문을 투척한 의거를 일으켜 현장에서 체포,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박 목사에게 광복 66주년을 맞는 소감을 들어보았다.

-66년 전 광복!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먼저 아버님 체험담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일본제국주의 자들이 신사참배 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으면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낙인을 찍어 50명이 옥사를 당했지요. 아버님은 대표로 강경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동경에서 유학을 하던 때인데 어느 날 전보가 한 장 왔어요. '내일 아침 8시 동경에 도착하니 맞이하라' 이 전보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역대 총독과 투쟁해서 밤낮 옥중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부산에서 올수가 있을까? 동경에 오는 목적은 이제 국회의장, 천왕과 투쟁하려는 것이 분명하니 죽음을 각오하셨구나 생각했지요. 그때 나는 한 달 후에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결혼을 포기하고 같이 투쟁할 것을 결심했었지요.

동경에 마중을 나가니 아버지는 안인숙 여사와 함께 왔고 우리 세 사람은 제 74회 일본 제국의회에서 일본 제국에게 죽음으로 투쟁하는 3인 결사대가 돼 투쟁하다 옥에 갇히게 됐지요. 하루는 아버님이 '1945년 8월에 광복되리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아버님 혼자 간직하지 않고 발표를 해서 한국교계가 놀랐지요. 그런데 정말 8월15일 정오 12시 갑자기 경성방송국에서 중대 방송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어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대 일본제국은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합니다'라고 방송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망했다.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백범 김구선생의 친필 액자가 있으신데 이 액자에 관한 사연을 들려주십시오.

제일 인상 깊은 과거의 추억이 있지요.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후 서울에 나타나셨을 때 김구선생은 "박 장로님(박영창 목사 부친)의 항일투쟁은 대단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라고 묻자, 아버님께서 "제 아들은 전도사 합니다. 동경유학을 한다고 하니 먼저 철저한 신앙의 기반을 닫고자 전도사 일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구선생은 "아버지의 애국심을 받들어 잘하시오"라고 하며 붓을 들어 친필로 써주셨습니다. (홀에 있는 액자를 가리키며)바로 저 액자입니다. '눈내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 네 발자국을 뒤 사람이 따라오리라...(중략)'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성' 최고의 도덕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에 총궐기해야

-박 목사님께서 '일본이여 대답하라'는 책도 내셨는데 일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범 김구선생은 상해에서도 중국 망명해서도 투쟁을 했죠. 그 외 전국에 항일투쟁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애국자 후손들이 퍼져서 애국지사 몇 만 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열들을 받들어야 합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허튼 망언을 연발하고 있어 우리 전 국민은 대대적으로 항거하고 계속해서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데 일본이 취하는 자세에 따라 친구가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이여 대답하라'는 책을 써서 일본이 반성하고 회개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후손들을 보며 안타까운 점과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우리 후손들이 어떤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후손들을 보니까 내 직계자손을 볼 때 3대 독자 아들이 있는데 엘리트이고 민족의식이 철저하고 내 교훈을 받아 애국심과 정의 투쟁이 확고한데 3대에 내려가니 미국사람 교육을 받고 기르니까 아버지와 같은, 할아버지와 같은 정신이 없고 애국심이 희미하지요. 그래서 조국이 어떤 길을 밟아왔고 애국이 무엇이며 해방이 무엇인가 보는 눈이 희미합니다. 4대로 내려가서는 어떻게 될까 각정이 됩니다. 애국 전통이 중단되면 안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광복절이나 삼일절 하루라도 경건하게 가족을 불러 예배를 드리면서 정의감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애국심이야말로 최대의 도덕이라고 선인도 말했고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자는 불효자식과 같지요. 내 조국은 내 조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후손들로서 조상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성'은 최고의 도덕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얕보고 망언하는 일본 사이비 잔재들에 전 국민이 궐기해서 항거 투쟁해야 하는 것을 확신하고 권고합니다.

올해 97세를 맞은 박영창 목사는 애국열사 고 박관준 장로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일본제국 중의원 국회의사당에서 신사참배반대 항의 경고문을 투척한 의거를 일으켜 현장에서 체포 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후 한국으로 압송되자 중국으로 탈출, 북경과 상해 등에서 망명생활을 하다 부친의 옥사소식을 듣고 귀국해 며칠 뒤 광복을 맞았다.

그는 일본 호세이(法政)대학, 동경신학대학, 연희대학을 거쳐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초대교목, 교목실장을 역임하다 1969년 미국으로 이주, 대한남가주교회를 설립하고 교계 및 각 사회단체장으로 활동했다. 박영창 목사는 1남(박영남 목사)3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모두가 장성해 현재 50여명의 친족들이 미주지역에 살며 각 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어 박영창목사의 바람대로 3대 목사(1대 박영창, 2대 아들 박영남, 3대 손자 박라니) 가족을 이뤘다. 아내 이정애 사모는 72년 동안 박 목사를 내조해오고 있으며 2년전 무지개혼이라 명한 결혼 70주년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이성가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더린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 오후 9:00
금 요 철 야 : 오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Tel.(718)359-7883, 직통.(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ych@yahoo.com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영 어 예 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 기 도 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41-20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www.nakwonchurch.org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 기 도 회: 오전 5:50
금요 기 도 회: 오후 9:00
Tel.(718)464-2295,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 요 철 야: 오후 9: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10:30
새 벽 기 도: 오전 6:00
영 어 예 배: 오전10:3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9:0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 김재열
주일1부예배 : 오전 8:00
주일2부예배 : 오전 9:30
주일3부예배 : 오전11:30
수요예배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45(월-토)
website: nyjoongboo.org
Tel.(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 문석호
원로목사 : 방지각
1부 이른예배: 오전 7:15
2부 예배: 오전 8:30
3부 예 배: 오전 10:15
4부 예배: 정오 12:00
5부 열린예배: 오후 1:30
6부 BM&MEM: 오후3:00
7부 늦은예배: 저녁 7: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새 벽 예 배: 새벽 6:00(월-토)
Tel.(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 허상회
주 일 예 배: 오전11:00
찬 양 예 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매월1주,3주) 8:00
Tel.(201)342-9194(Cel),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 유상열
주 일 예 배: 오전10:30
주 일 학 교: 오전10:30
수요찬양모임: 오후 8:30
토 요 학 교: 오전10:3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 김석형
주 일 예 배 : 오전 11:30
영 어 예 배 :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 오후 8:30
금 요기 도 회 : 오후 9:00
새 벽기 도 회 :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순복음 뉴욕교회

담임목사 : 김남수
주일1부예배 : 오전 8:30(영상예배)
맨하탄 주일1부예배: 오전8: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금 요 예 배: 저녁 8:30
새 벽 기도회: 6:00,(맨하탄) 6:30
Tel.(718)321-7800, Fax(718)321-9394
130-30 31Ave., Flushing, NY 11354

어린양 교회

담임목사 : 김수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11:30
영어 3부예배: 오후 2:30
새 벽 예 배: 오전 5: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9:00
Tel.(718)899-8309, Fax. (718)899-8433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 이규본
주 일 예 배: 오후 12:30
새벽기독(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 어 예 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용익
주일1부예배: 정오 12: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새 벽 기도회: 오전 5:30
수 요 예 배: 오후 8:20
금 요 예 배: 오후 8:20
Tel.(718)310-7061,7062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원호
주 일 예 배: 오후 1:00
영 어 예 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장영춘
주일1부예배 : 오전 8:30
주일2부예배 : 오전10:00
주일3부예배 : 오후12:00
주일4부예배 : 오후 2: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시(1부)
주일예배: 오전 11시(2부)
젊은이예배: 오후 1시 30분
NCF영어: 오후1시 30분
TEL. 718-672-1150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queensch.com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 일 대 예배: 오전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치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 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 하경남
주일낮예배 : 오전11:00
찬 양 예 배 : 오후 2:00
수 요 예 배 : 오후 8:00
새벽기도회 : 오전 5:40
Tel.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봉헌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11:00
주일 3부예배 : 오후 1:30
포 어 예 배 : 오후 7:00
수 요 예 배 : 오후 8:00
새 벽 예 배 :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 박재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
주일 5부 예배: 오후 5:00
주 일 밤 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 일 학 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 요 기 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매일)
유,초,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30
TEL&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 신학교 교장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추석맞이 효도잔치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 뉴욕효성교회 담임) 연례행사인 추석맞이 효도잔치가 9월 10일(토) 오후 2시부터 롱아일랜드 한국요양원에서 열린다. 이날 국악, 사물놀이, 색서폰 연주, 예꼬, 부채춤, 장고춤 등의 특별공연과 기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푸짐한 음식과 상품 그리고 선물도 준비된다. 선교회 측은 이를 위해 후원금을 기다리고 있다. pay order: WKBMC 나 KIM YOUNG HWAN 주소: 20-44 130St. #2F. College Point NY 11356

▲문의: (914)393-1450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 퀸즈아카데미 학생모집

퀸즈장로교회(담임 장영춘 목사) 부속 한국학교와 퀸즈아카데미가 학생을 모집한다. 9월 17일 개강하는 한국학교는 4세-12학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 역사, 예능교실(미술, 음악, 태권도, 발레교실)을 운영하며 정규반은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예능교실은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운영한다. 등록금은 교인은 무료이며 교재비와 예능교실은 별도. 9월 7일 개강하는 퀸즈아카데미는 프리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며 방과후학교, ESL, 튜터링, 리딩&매스, 예능교실 등이 있다.

▲문의:(718)886-4646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

메릴랜드 주 루터빌에 소재한 볼티모어교회(담임 이영섭 목사)가 중고등부(Youth Group) 담당 사역자를 청빙한다(파트타임). 자격은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생으로 이중언어(한영)가 가능하며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사진첨부), 신앙고백서 1부이며 서류는 이메일(kpcb@verizon.net)로 보내야 한다.

▲문의:(410)337-9448

뮤지컬 '엘리야' 공연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가 자체 제작하는 뮤지컬 '엘리야'를 8월 27일(토), 9월 3일(토) 오후 7시 30분 각각 무료 공연한다. 동 교회 가브리엘 스킷선교회가 준비한 뮤지컬은 선지자 엘리야의 일생 가운데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갈멜산의 싸움까지를 1시간 20여분 간 다룬다. 동 교회는 10여년 전부터 청년들을 중심으로 '룻' 등 뮤지컬을 자체 제작해 공연해왔다.

▲문의:(718)229-0858

〈9면에서 계속〉

또 콘서트 시간에 아프리카의 복음화와 기아방지를 위한 특별 기도도 있었다.

한국커뮤니티에서는 한국교회 연합성가대(지휘자: 조래현 전도사)가 '보혈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 안에'를 찬양했다. 이번 콘서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각 민족들의 언어로 찬양하며 자신들의 민족의 믿음과 신앙을 서로 각 민족과 함께 나누는 화목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100여명의 다민족 연합성가대(지휘: Lori Cooper)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부르며 미국의 재 부흥을 소원했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월넛크릭GIM교회 담임)는 "그동안 글로벌다민족선교(GIM) 행사를 통해 북가주 여러 민족들이 연합하며 교회의 연합을 통해 콘서트, 연합기도컨퍼런스 그리고 선교 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제 7회 글로벌국제 다민족선교대회(River of Life Christian Church, Santa Clara 10월 22-23일)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 뜻을 알라"

뉴욕목사회 임실행위, 체육대회 10월3일 알리폰드팍

뉴욕목사회(회장 김용익 목사)가 지난 22일 오전 베이사이드장로교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임실행위를 갖고 세미나와 체육대회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예배를 드린 예배는 총무 김영환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식 목사, 성경봉독 유승례 목사(협동총무), 말씀 노기송 목사(협동총무), 광고 장경혜 목사(서기), 통성기도, 축도 김승희 목사(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기송 목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왜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까?"라고 질문하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세속주의적인 일, 인본주의적인 일, 혼합주의적인 일들이 원인"이라며 "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것"이고 단언했다. 노 목사는 "포퓰리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둘째,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을 알고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목사회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통성기도는 뉴욕교협 주회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위하여, 목사회 주최 목회자 세미나와 체육대회를 위하여 제목으로 기도했다.

2부 회의는 김용익 회장 사회로 개회기도/박진하 목사, 회원점명/송일권 서기, 개회선언/회장, 사업보고/총무, 안건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업보고 시간에는 베어마운틴기도회, 교회성장세미나(강사 피종진 목사), 미동부지역연합체육대회, 목회자세미나(강사 김인중 목사) 등이 보고됐다.

이날 논의된 체육대회는 10월 3일(월) 알리폰드 팍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또 세미나는 좋은 강사를 초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폐회 및 식사기도는 지인식 목사가 했다.

한편 교육관을 신축하고 C/O를 기다리고 있는 베이사이드장로교회를 위해 참석한 목회자들이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제25회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대회 지원금·가두홍보 논의

뉴욕교협 제25회 정기이사회, 이사영입 제자리

뉴욕교협(회장 김원기 목사) 제25회 정기 이사회(이사장 황규복 장로)가 지난 15일 저녁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2011할렐루야복음화대회 후원 등을 논의했다.

1부 예배는 이주익 장로(부이사장) 사회로 기도 김태수 부이사장, 성경봉독 장석면 부이사장, 설교 김원기 목사, 통성기도 △뉴욕 및 미국의 허물어진 믿음/유일용 장로 △뉴욕지역 500여 한인교회와 동포사회를 위해서/손석완 장로 △본교협과 이사회 부흥발전을 위해서/최재복 장로,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원기 목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14:13-21)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며 "하나님의 일은 부담감이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일어났는데 축사는 감사기도로 우리 모두 기도하며 연합된 모습을 보이자"고 말했다.

2부 회의는 황규복 이사장 사회로 개회기도 이광모 장로, 개회인사, 회원점검 이주수 이사, 전회의록 낭독, 안건토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규복 장로는 "기도와 후원, 조언해주신 전임 이사장들에게 감사하며 이사들은 뉴욕을 지키는 큰 소나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인사했다.

안건은 △할렐루야복음화대회 후원 △효율적인 이사영입 △이사회 회무 등이 토의됐다. 할렐루야대회 인원동원은 이사 교회 별로 하며 안내는 이주익 이사, 헌금집계는 최재복 이사가 맡는다. 교협 부회장 손석완 장로는 대회 후원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황 장로는 교협개정헌법에 상정된 평신도 이사영입 의무 조항이 관철되지 않았다며 9월 3일(토) 오후 4시 플러싱 고려당 앞에서 하는 노방홍보가 효과적인 이사영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뉴욕청소년센터 신임사무총장 결정

김현돈 목사...9월 6일 이취임예배

뉴욕교협산하 뉴욕청소년센터 신임사무총장이 결정됐다. 청소년센터는 오는 9월 6일(화), 오후 8시 신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이 취임 예배를 드린다.

김헌태 전 사무총장은 공식적으로 2011년 7월31일자로 사임했으며 신임 사무총장 김현돈 목사(사진)는 9월 1일부터 부임하게 된다.

동 센터 이사장 이수일 박사는 지난 16일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소년센터 실행이사회가 지난 8월 6일 최지호 목사를 초청, 학원사역자들에게 사과하는 시간을 갖고 신임 사무총장의 영입 및 결정과정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언급하면서, 다시 뉴욕청소년센터가 이전의 학원사역부로 들어와 함께 사역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수일 이사장은 "청소년센터가 다시 하나가 돼 이전의 학원사역 중심은 물론이고, 교육과 상담(청소년, 부모, 목회자자녀, 사역자 대상의 집단상담 및 상담훈련교육의 각종 상담교실)의 Spiritual-Quality Program을 구상하며 기도하고 있다"며 "과거의 사회복지적인 기능에서 탈피해 청소년 선도적이고 복음 전파적인 목적을 강화하고자 함이 현 실행이사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쉘터 건물문제도 점진적으로 청소년 선도적이고 복음 전파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방안들이 논의 연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돈 신임사무총장은 미육군현역(3년)과 주방위(5년)로 근무했으며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목회학석사)를 졸업하고 2009년 목사안수(침례교)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신호범 초청 조찬 강연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뉴욕장로협, 신호범 장로 초청 조찬 강연회

대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한창연 장로)가 지난 20일 오전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신호범 장로(워싱턴 주 5선 상원의원) 초청 조찬 강연회를 가졌다.

신 장로는 지난 21일 맨해튼 리버사이드처치에서 한인 2세를 위한 국제청소년지도자양성을 위한 특별집회 인도 차 뉴욕을 방문 중이다.

강연을 통해 신 장로는 76세의 나이이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인인 현재는 한인 정치인 양성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17만 한인 입양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5) **리스팅 접수마감 2011년 8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1년 9월 18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남가주교협 장학금 신청접수 시작

9월2일 마감, 작은교회 교역자자녀 50명에 수여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종기 목사)가 '작은 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남가주교협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50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남가주교협은 15일 오전 교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17일(토) LA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협은 지난 8월 8일부터 4일간 LA 다호갈비를 비롯 북창동 순두부 밸리, 로랜하이츠, 풀러튼, 세리토스, 가든그로브, 어바인 지점에서 가졌던 일일식당을 통해 모은 모금액이 총 24,260달러라고 밝혔다.

신청마감은 오는 9월 2일(토)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남가주지역 건전한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 자녀로 6학년에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10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교협 홈페이지 www.thec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학생증 복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그리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난 3주간의 주보 등이다.

남가주교협 임원들이 목회자 자녀 장학금 전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출방법은 우편으로만 받으며 겉봉에 '장학생서류'라고 기입해 교협 사무실(981 S. Western Ave, Suite 401, LA, CA 90006)로 보내면 된다.

한편 일일식당을 위해 장학기금을 보내준 교회 및 단체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담임목사.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나성열린문교회(박헌성), 드림교회(이성현), 대흥장로교회(권영국), 생명의말씀사(대표 이효숙), 한미장로교회(이운영), 윌셔연합감리교회(정영희), 한미동포재단(김영), 미주평안교회(송정명), 손수웅(남가주교협 이사장),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남가주사랑의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고태형),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나성서부교회(이정현),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그이름교회(나형길), 나성제일교회(김광삼), 예수로교회(박세헌),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충현선교교회(민종기), 에버그린선교교회(양수철), 예일한인교회(박은종).

〈박준호 기자〉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린 40일 대각성기도회

베델한인교회 '40일 대각성기도회' 성황

개 교회 차원 넘어 매일밤 1천5백-2천명 참석

얼바인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에서 열리고 있는 '40일 대각성 기도회'가 개 교회 행사 차원을 넘어 남가주와 전 미주의 대각성 운동으로 번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1일부터 시작된 대각성 기도회는 8월 18일까지 매일 밤 1천5백-2천명의 성도가 모여 기적을 체험했다. 이 기도회는 9월 9일까지 계속된다.

대각성 기도회에 꾸준히 참여했던 선효신 씨는 키모 치료를 받아온 폐암환자로 18일 조직검사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는 기적 같은 진단을 받았는가 하면, 호흡이 곤란한 질병으로 X-레이 검사를 받았던 그레이스한 씨는 막힌 가슴이 뚫리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한 여성은 "남편이 주중에 교회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는데 40일 대각성기도회 기간에는 순한 양처럼 됐다"며 가정이 더욱 화목해졌다고 말했다. 본 교회의 손인식 담임목사는 "이렇게 매일 많은 분이 참여할 줄은 나도 몰랐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은 매일 밤 뜨겁게 역사해 놀라운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40일 대각성기도회에는 베델한인교회 교인 외에도 인근 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개 교회 행사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연일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손인식 목사는 "이 대각성운동이 교세확장의 차원이 아니라 가정회복과 사회변혁, 북한 동족의 구원과 복음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성령을 받아 삶의 문제 근본을 뒤집고 명품 가방 등 사치품을 사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으로 예수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매일 밤 전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아버지학교에서 민병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아버지들이여 가정의 리더로 서라!

주님의영광교회 8월 아버지학교 개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아버지학교를 개최했다.

'나는 아버지다'라는 주제로 열고 있는 아버지학교의 세 번째 날 행사는 '나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조별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며 '남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민병요 목사는 "아버지들이 가정을 섬겨 나갈 때 나타나는 것은 가족이 행복해지며 그로인해 자신들이 행복해지고 활기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아버지의 특권은 아내와 자녀가 남편과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학교는 첫날 '남자의 꿈', 둘째 날 '남자의 자격', 마지막 날 '남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엔 아내들을 초청해 남편이 직접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조효성 목사가 찬양하고 있다

"CCM 붐 일어나 전세계를 찬양으로"

조효성 목사 새 앨범발매 감사콘서트

찬양사역자 조효성 목사 새 앨범 발매 감사콘서트가 20일 저녁 7시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안동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조 목사가 '주님만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너는 나를 구하라', '천년이 두 번 지나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을 불렀다.

조 목사는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마음에 소원을 주시리라'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담긴 앨범이 출시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콘서트를 하게 됐다. 또 한류 붐과 함께 CCM사역 역시 붐이 일어나 전 세계가 찬양으로 뒤덮는 일이 일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효성 목사는 한국에서 두 달간 전국투어를 비롯해 미동부,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 등을 순회하며 찬양콘서트를 갖게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GMIT '수퍼 콘서트'

GMIT(대표 이승종 목사)는 오는 10월 29일(토) AT&T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팬퍼시픽 필름 페스티벌'(Pan Pacific Film Festival·PPFF)을 앞두고 기금모금을 위한 '수퍼 콘서트'를 오는 9월 10일(토)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 80-90년대를 풍미한 팝 가수 타미 펀퍼버크를 비롯, 건반음악의 대가 그렉 매티슨, 그래미상 후보에 2차례 오른 크리슬 머든, 복음성가 가수 구현화, 기타리스트 켄 송, 랜디김 밴드 등이 출연한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213)500-8422

미주성결교 서북부 지방회 연합금요기도회

미주 성결교 총회장 서북부 지방회 방문을 계기로 연합 금요기도회가 26일(금) 오후 8시 오레곤선교교회(담임 박병주 목사 9100 SW Wilshire St. Portland, OR 97225)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도회의 강사는 이의철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문의: (503)292-2294

셀렘한인교회 시무장로 임직식

셀렘한인교회(담임 전병국 목사 219 19th St. S.E. Salem, OR)는 조상연 협동장로의 시무장로 임직식을 27일(토) 오후 1시에 개최한다.

▲문의: (503)399-9388

고 장준하 선생 추모식

고 장준하 선생 추모식이 27일(토) 오후 6시 평화의교회(담임 김기대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추모식엔 '장준하 선생 그의 아들이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함께 열린다. 강사는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인 장호준 목사(커네티컷제일교회 담임).

▲문의: (323)731-7779

WMU신입생 환영회에서 임동선 총장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

온 캠퍼스 37명 온라인 31명 등 총 68명 입학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동선 박사)는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를 16일 오후6시 본교 학생라운지에서 개최했다.

이금희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신입생 환영회는 임동선 총장이 '부름받은 자의 자각(마 9:27-28)'이라는 제목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임동선 총장은 "목회는 성직이며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학교에서 지성과 인성 그리고 교수와 학우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의 유형은 말 잘하는 자, 잘 가르치는 자,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다하는 자, 실력과 영성을 쌓아 영감을 불어넣는 자로 나눌 수 있다. 우리 WMU 학생들은 실력과 영성이 겸비되어 맡겨진 양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성진 부총장이 교직원소개, 신선묵 교수가 신입생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영회는 조석환 교수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WMU의 가을학기 신입생은 On Campus 37명 온라인 31명 등 총 68명이 입학했으며 가을학기는 오는 22일부터 12월9일까지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한국교회정보센타(www.kcdc.net)는 목사님의 목회에 신바람을 드립니다.

목회가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설교가 고민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목회보다 더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www.kcdc.net의 문을 여십시요. 그럼 목사님의 목회가 확 바뀝니다.

한국교회정보센타(Korea church Data Center : 대표 김항안 목사)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성장의 기쁨을,
목회자들에게는 신선한 영적 부싯돌같은 영감이 넘치는 복음적인 설교와 목회 아이디어를 드리는 비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kcdc 회원에게 제공되는 자료 (예, 한 주간의 자료 내용)

- 주일 낮 대예배(행복한 예배)를 위한 예배자료 (예배의 부름기도, 참회의 초대, 참회기도, 목회기도, 헌금기도, 위탁의 말씀, 축도)
- 주일 낮 대 예배(행복한 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자료 5편 제공(강해, 본문, 주석, 상황, 기타)
- 주일 낮 대 예배 설교를 위한 예화 6~8편
- 주일 밤 예배(주 찬양예배) 설교를 위한 설교 자료
- 수요 예배(주 만남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주제별 설교: 믿음, 사랑, 가정, 전도 등)
- 금요 예배(금요축복기도회)를 위한 설교자료
- 새벽기도(영성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 주일 낮(행복한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파워포인트 종합자료
-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기도와 치유 명상(Today's Prayer Healing Q.T) 자료

* 목회에 필요한 영적인 부싯돌같은 목회 아이디어(Program) 제공
* 매월 제공하는 4 주간의 자료 분량은 A4 사이즈 약 370매 정도의 분량임
* 한국교회정보센타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모은 자료가 아니라 100% 집필위원(교수, 목회자)이 창작한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안내

1년 회비 $60을 사용하시는 교회 수표로 보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카드로 결재를 하신 후 이메일(kcdc@chol.net)이나, 전화(02-824-5004), 팩스 (02-824-4231, 4232)로 알려 주시면 사용 아이디와 함께 자료 활용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KKCDC설교은행
한국교회정보센타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설교자료를 주제별, 본문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KCDC예화은행
한국교회정보센타가 30년 동안 만들어 축적한 모든 예화자료를 주제별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혜택

영상목회자료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상목회 활성화를 위한 영상자료 개발 및 보급

부설(도서출판 글로리아)를 통한 출판지원
목사님들의 설교집, 논문집, 예화집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간까지 도와 드립니다.

한국교회정보센타 Korea Church Data Center

홈페이지 - www.kcdc.net
이 메 일 - kcdc@chollian.net
전화 - (02) 824-5004
팩스 - (02) 824-4231-4232
서울 동작구 상도 1동 685

장로교 '한 교단 다 체제' 로드맵 마련

한장총, '5단계' 발표...연합기도회-교단총회 한 도시에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사진)가 '한 교단 다 체제'(하나의 장로교단 아래 각 교단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장총 한교단다체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지난 19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학술원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 9월 장로교단들의 총회 때 개회예배와 성찬식을 공동으로 드린 뒤 한 교단 다 체제를 선포하는 5단계 안을 확정했다.

1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통회자복하고 하나 되기를 위한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 이에 따라 오는 11월 29일 각 교단 총회 임원들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12월 6일 각 교단 장로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기도회를 각각 가질 예정이다.

2단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교단 다 체제 하의 한국 장로교회 신앙고백서로 하자는 것이다. 대신 각 교단의 특수 상황을 배려해 보완할 수 있고 시대적 감각에 맞춰 작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3단계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과 정치를 한 교단 다 체제의 예배 모범과 정치로 받아들이자는 것. 4단계는 내년 1월 중 각 교단이 파송한 위원들로 '한교단 다체제 헌법초안작성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것.

이어 5단계는 내년 장로 교단 총회를 9월 셋째 주간으로 정하고 한 도시에서 갖도록 조율한 뒤 개회 예배와 성찬식을 함께 하고 한 교단 다 체제를 선포하자는 것이다.

한장총은 다음 달 각 장로 교단 총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회원교단들이 5단계 로드맵을 헌의안으로 채택해줄 것도 요청했다. 또 위원장 이종윤(예장 통합) 목사, 서기 이경욱(예장 백석) 사무총장, 회계 오치용(예장 합동) 목사 등으로 준비 조직도 인준했다. 이 밖에 내년 9월 1일 조선장로교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장로교 100주년 기념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종윤 위원장은 "한장총이 2001년 정체성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10년간 장로교단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한 교단 다 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단들이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찬송가공회' 복원한다

공동회장에 김삼봉·윤기원 목사 선임 등 조직 구성

한국찬송가위원회(위원장 이보철 목사)와 새찬송가위원회(위원장 김삼봉 목사)가 19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찬송가공회의 복원을 공식 천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한국찬송가공회 회의에선 공동회장에 김삼봉(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윤기원(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가 각각 선임됐다. 공동총무엔 이치우(예장 합동) 강승진(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서기엔 김용도(한국기독교침례회) 윤두태(예장 합동) 목사, 회계엔 최부강(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엄현섭(기독교한국루터회) 목사, 감사엔 이호성 장로가 선출됐다.

양 위원회는 2008년 4월 일부 찬송가공회 이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자 이듬해 6월 한국찬송가공회를 새로 구성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총회에서 일부 교단이 위원회 파송이사들을 철수시키면서 그동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날 한국찬송가공회 회의에서는 (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서정배·이광선 목사)에 대해 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6년 전 발행한 21세기찬송가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새로 발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역할이 거의 없던 한국찬송가공회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한국찬송가공회에 저작권이 없다"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힘입은 것이다. 고법은 한국찬송가공회가 충청남도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뒤 2008년 4월 30일 가진 정기총회 회의록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당시 회의록엔 '한국찬송가공회를 해산하고 본 공회 모든 재산 업무 및 권리와 의무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로 승계키로 하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몇몇 인사들은 "그렇게 결의한 바가 없다"며 "날조된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고법은 이 같은 반발을 '이유 있다'고 본 것이다. 판결 직후 한국찬송가공회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찬송가공회 저작권 관리회사인 SPC가 음반기획사 올에이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국찬송가공회 측은 "한국찬송가공회의 재단 설립 근거가 사라졌다"며 "법인 원인무효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예장합동, 기독교한국루터회 등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회원 교단 교단장들은 지난 1월 한국찬송가공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원래의 한국찬송가공회를 복원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지난 3월과 4월 잇따라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취소 요청 공문을 충청남도에 보내기로 공식 결의한 바 있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는 교단마다 보급해온 찬송가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1981년 한국찬송가공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2008년 일부 인사들이 찬송가공회를 재단법인화하면서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기감, 수장없이 4년 보내나…

감독회장 임기 2012년 10월 만료

3년전 감독회장 선거 파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감리교 사태는 결국 내년 10월 행정총회서 끝나는가. '4년 임기의 감독회장 선거가 다시 돌아오는 내년까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약 현재의 상태가 고착화되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4년간 끊임없는 고소, 고발로 허송세월만 보내게 된다.

기감 문제의 당사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임시로 행정을 맡고 있는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3년 전 감독회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했지만 자격 문제로 당선 인정을 받지 못한 김국도 목사, 재선거에서 승리했지만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강흥복 목사다.

김 목사는 공정하게 총회를 개최해 법률에 따라 후보를 심사하고 교리와 장정(헌법)을 다룬 뒤 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 목사는 재선거 후 총회 정상화를 주장한다.

백 직무대행이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게 선(先)행정총회 개최다. 그는 "행정총회 개최가 현재로서 최대의 공약수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며 "기감이 식물인간처럼 돼 있어 의견 표출도 안 되고 언로가 막혀 있으니 최소한의 행정을 돌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백 직무대행은 행정총회를 열어도 재선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송만 마무리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기감 정상화 수습 대책위원회가 모임을 갖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문제의 당사자들이 불참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했다. 한 기감 목회자는 "교단의 미래와 대의를 위해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모두 그만두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단 총회 이슈 점검

합동 5년간 안살림 이끌어갈 총무 5명 출마
통합 부총회장 제비뽑기 도입 등 선거 개선
백석 대신측과의 통합/ 고신 예장 합신과의 연합
기침 300억 총회 빌딩/ 루터회 NCCK 가입 여부 논의

[미션라이프] 한국교회의 총회 시즌이 다가왔다. 장로교단들과 침례회, 루터회 등은 9-10월 정기총회를 열어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을 선출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선거제도 변경 등 굵직한 헌의안들이 올라와 있어 대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달 19일부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예장 합동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총무 선거라 할 수 있다. 1년 임기의 총회장에 비해 5년간 교단 안살림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현재 노회 추천을 받은 총무 후보는 강태구(대구 일심교회) 권순직(서울 영성교회) 김창수(부산 부광교회) 이기택(구미 서부교회) 황규철(서울 예인교회) 목사 등 5명. 총무는 제비뽑기로 뽑는 임원과 달리 대의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3개 지역(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 순환제에 따라 올해는 영남지역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현행 제비뽑기를 통한 임원선거 방식이 '제비뽑기+직선제' 형태로 바뀔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다음 달 19일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부총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론 통합 총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맛디아 선출방식, 즉 제비뽑기 투표제를 거론하고 있다. 현재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하고 있다. 또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한기총에 대한 총회 차원 대책 마련과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제도 구축, 임시목사의 호칭과 연임 문제도 다뤄진다.

○…예장 백석은 다음 달 19-22일 '큰 일을 행하는 총회(시 126:3)'를 주제로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제96회(백석 제34차) 총회를 갖는다. 예장 대신측과의 통합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등장한 가운데 여성목사안수 시행과 관련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통과된 결정을 놓고 노회에서 '가부'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정할 내용도 없이 헌법 개정만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9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시작되는 예장 고신 총회에서는 교단 정체성 수호와 타교단과의 연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회장 후보인 정근두(울산교회) 부총회장은 지난 8일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회에서 "신학적·역사적으로 정체성이 같은 예장 합신과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일부 임원 후보들은 "인위적 연합이 아닌 교단 정체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주장한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19-22일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101차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의장단 선거와 함께 5년마다 돌아오는 총무 선거를 실시한다. 아직 후보 등록을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총회장에 세 명, 총무에 네 명의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 세워질 총회 빌딩에 관한 건축 문제가 이슈다. 300억원이라는 건축비 마련을 놓고 고심 중이다. 여성목사 안수 문제도 관심사다.

○…기독교한국루터회는 10월 6-7일 인천 만수동 소명교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롬 1:17)'를 주제로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제외하고 임원 및 실행위원 선거를 실시하고 헌법을 개정한다.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가입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한국교회 목회자사모의 행복조건...교회크기, 성도수와 무관

[미션라이프] 한국교회 목회자 사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A사모는 교회 성도 수가 50명도 채 되지 않는 섬지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는 행복하다. 가정사역자로서의 꿈이 있고 무엇보다 목회자인 남편과 관계가 좋기 때문이다. 반면 작은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B사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남편과 성도들의 갈등을 중재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B사모는 "아내로, 사모로 설 자리가 없는 지금 행복은 요원한 일 같다"고 고백했다.

정서적 함양보다 장래 비전 갖는 것이 핵심 요소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원(원장 김향숙)은 최근 전국 교회 사모 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표 참조). 설문 결과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모는 8.7%인데 반해 자신이 불행하다는 응답은 18.2%였다. '불행한 사모'가 '행복한 사모'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나머지 73.1%의 사모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모들 중 결혼생활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모는 87.6%였다. 반면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모들 중 결혼생활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3%에 불과했다. '매우 불행하다'는 6.8%, '불행하다'는 19.3%를 각각 차지했다. 결혼생활의 행복 여부가 사모의 행복 여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은 사모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건이다. 정서적인 함양보다 장래 비전을 갖는 것이 사모의 행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떠올랐다. 행복점수를 높게 표시한 사모들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란 질문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싶다'(79.4%),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20.6%)고 답했다. 김향숙 원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학력이 높아지면서 사모의 행복 요건도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회의 크기와 성도 수는 사모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현재의 성도 수에 만족한다'는 문항에서는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모들의 75%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반면 행복지수가 낮은 집단의 80.6%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100명 미만'(36.4%)과 '100-300명 미만'(36.4%) 규모의 교회를 섬기는 사모들이 주로 행복지수가 높았다.

김 원장은 성공이 아닌 행복을 목적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모행복처방'을 내놓았다. '사모이기 전에 아내가 될 것', '한 영혼을 소중히 바라볼 것', '꿈꾸는 사모가 될 것' 등이다.

김 원장은 "이번 설문은 교인수와 교회성장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외적조건보다는 가정생활과 자아실현 욕구 같은 사모 개인의 내적 태도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영업
뉴욕곰탕 숯불갈비
New York Kom Tang
교포사회의 등대
24시간 오픈
주일은 쉽니다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뒤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태권도, 검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sworld.com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대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의 3대 목표
1. 말씀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총재 황 의 영 목사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 sbm01@hotmail.com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BAL MOVEMENT

<월간> 미주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nloveny@yahoo.com

미주크리스천신문
아이폰 앱
Application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를
지향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전체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수 있으며
미주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신문보내기 후원을 통해 귀한 선교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 및 구성
전체뉴스, 칼럼, 교회검색
아이폰이나 아이팟터치를 이용하셔서
앱 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멕시코 사랑선교회 선교동행기 (상)

"예수님을 위해 망가져라, 최선을 다해라"

멕시코 Maneadero에 소재한 사랑선교회(Amor Mission International 서진원 선교사) 사역현장에 본지 이성자 기자가 다녀왔다. 남가주든든한교회 단기선교 팀과 동행한 것. 이 기자의 선교동행기를 1,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스케치

○…36명으로 구성된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단기선교팀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멕시코 Maneadero에 소재한 사랑선교회(Amor Mission International 서진원 선교사) 선교 현장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두 시간 가량을 달려가 마네아데로에 닿으니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밀짚모자를 눌러쓴 서진원 선교사가 반갑게 맞이한다. 곁에서 함께 우리를 반겨주는 사모님 역시 긴 머리를 가지런히 뒤로 묵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분의 모습은 10여년을 멕시코에서 사역한 탓인지 모습조차 그들과 닮아 버린 듯했다.

모두가 초행길이고 보니 몇 바퀴를 돌아 돌아 어렵게 찾아오긴 했지만 서선교사의 반가운 모습과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당, 야자수 잎으로 운치 있게 꾸며진 주방과 오성 호텔(서선교사님이 이름을 붙인 숙소)은 먼 길의 피곤함도 말끔히 잊게 했다.

○…이미 해가 서산에 지고 있어 사역을 시작하긴 늦은 시간인지라 단원들은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와 도착감사예배와 오리엔테이션시간을 가졌다. 도착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 선교사님은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단기선교팀을 향해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이 임재 하실 수 있도록 하자, 성령님이 사역을 인도하시도록 하자'고 권했다.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단원들은 식사봉사팀이 마련한 저녁만찬을 대하자 모두가 함박웃음을 머금었다. 마치 일류 뷔페식당에 온 듯한 만찬(?)이었기 때문이다.

여행길에 아침과 점심을 적당히 빵으로 때운 단원들은 선교사님이 준비한 김치찌개와 무공해 야채, 식사 팀이 LA에서부터 준비한 정성어린 밑반찬들은 그야말로 꿀맛이었기 때문이다. 저녁식사 후 각 팀(건축, 미용, 의료, 식사 등)모임 통해 다음날의 사역을 준비했다.

멕시코는 물이 귀한 곳이라는 선교사의 설명을 듣긴 했지만 먼지를 털어 내고자 샤워실로 향해 보았지만 샤워기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고 졸졸거리며 가늘게 흐르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을 때 엘에이의 풍요로움이 감사함으로 밀려왔다. 있는 동안 샤워안하고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 같았다.

○…둘째 날 아침, 온 단원들은 아침 7시에 드려진 경건회로 하루를 시작했다. 경건회를 통해 전해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25절의 말씀이었다. 단원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며 힘차게 첫 날 사역을 시작했다.

최환경 집사를 팀장으로 구성된 건축팀들은 서진원선교사의 지시아래 건축 중인 유치원 교실 천정공사를 시작했다. 예년과 달리 치과 치료용 의자까지 완비(?)된 치과 사역팀 김옥란 선교사와 홍문천 집사는 장비를 준비해 주신 서 선교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홍광순 권사와 김경희 권사의 미용사역도 손 빠르게 움직이며 아름다움을 창조해 냈다.

선교센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팀을 뒤로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VBS 팀은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노방전도 훈련을 서선교사님으로부터 받았다.

"예수님을 위해 망가져라, 20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우리의 박수 속에 사탄이 물러간다. 힘차게 찬양하라 복숭아 뼈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여라..." 실전에 필요한 지시사항과 연습을 마친 후 거리로 나섰다.

"선교센터가 도심에서 가까운 곳이라 이곳에 인디오들이 살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안고 있던 나는 펼쳐진 센타 옆 마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오와까 인디오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이 마을. 엔세네다에서 20킬로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서 선교사의 표현으로는 이 지역이 '강남'이란다. 이런 곳에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 있는가?

마을 골목들이 2미터 넓이나 될까? 좁은 간격을 두고 마주한 판자촌. 그나마 그 좁은 골목 가운데로 코를 찌르듯 악취를 풍기는 하숫물이 흐르고 있었다. 단원들이 골목을 돌며 찬양을 부르자 그곳에 사는 어린이들과 엄마들이 찬양소리에 머리를 내밀고 우리를 바라보았다.

온통 콧물로 범벅된 아이들, 부스스한 머리... 선뜻 손 내밀어지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멕시코 오하까 인디오들의 후손이라고 한다. 이곳이 오하까보다는 임금이 비싸기에(최고 하루일당 10달러 정도)생존을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함께 모여 정착해 살며 농장에서 일을 한다. 수년전에는 그나마 농장일이 많아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들이 경작하던 홍당무 밭이 수확이 줄거나 아예 폐쇄된 곳이 많아 그들의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가 돼 버렸다.

서진원 선교사가 이곳에 발목이 잡힌 것도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이라던 말이 실감났다. 좋은 것 먹고 누리며 세계적인 도시 LA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왜 이리 부끄럽게 느껴지는 걸까?

노방전도팀이 선교센터로 돌아와 20여 분쯤 지났을까? 맨발에 아이들이 까만 눈동자를 깜빡거리며 교회당으로 들어선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모습도. 넉넉한 풍채를 가진 아빠의 모습도 보였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찬양을 하고 단원들과 어우러져 첫날 공부를 마친 후 정성스럽게 준비한 샌드위치를 나누었다.

미용팀도, 치과팀도 건축팀도 어느새 자리를 잡아가며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단기사역팀의 사역은 6박7일 동안 진행됐다. 스와밋에 나가 전도하며 미용사역을 진행했고, 아이들에게 풍성과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을 통해 기쁨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둘째 날 해변가에 나가 목청 높여 찬양하며 전도지도 나누었다. 순수한 멕시코 사람들은 우리에 찬양에 맞춰 박수도 쳐주고 전도지도 받아들었다. 어느새 새로운 선교단원(?)들이 우리 뒤를 따라 발걸음을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쯤 지나자 그곳을 지키던 경비원들의 호루라기 소리에 놀라 단원들은 발길을 멈추어야 했다. 그곳에선 노방전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종교의 자유함이 있는 멕시코라고는 하지만 국교가 천주교라 그런 것인가? 선교단원들에겐 이 또한 새로운 경험이 됐다.

치과사역을 담당한 김옥란 선교사와 홍집사는 점심도 건넌 채 사역에 전념했다. 그들에게는 흐르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었다. 한 아이라도 더 치료를 해주고 싶어서다.

"10살쯤 된 아이의 이가 전부 20개였어요. 그 중에 14개가 썩었는데 어떻게 뭘 먼저 치료해 주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죠. 물론 치과는 처음이라 기계소리도 무서워했어요. 다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말꼬리를 흐리는 김 선교사의 눈에 이슬이 맺힌다.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도와야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우린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산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움과 함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이 땅에 가난과 기근이 사라질 순 없을까요?, 온 세상 복음화의 그날은 언제일까요?"라고 안타깝게 물으며...

이곳에서 이들의 모습을 지울 수 없어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13년을 지내온 서진원 선교사. 갑상선암 4기 판정을 받고도 꿋꿋하게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치며 헌신하고 있는 서선교사 부부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다음호에 계속〉

〈이성자 기자〉

36명 단기선교단원들에게 선교 열정 몸소 보이며 비전 심어줘

선교팀원들이 이발 사역을 하고있다

센터 옆 마을에 살고있는 오와까 인디오 후손들

세계종교계 소식

42년 독재 벗어난 리비아 교계, 종교 자유 갈망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가 21-22일이뤄진 나토(NATO)군과 현지 반군의 공습으로 점령됨에 따라 무아마르 카다피의 42년 철권통치가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리비아의 재건과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군을 이끌고 있는 과도국가위원회(NTC)와 포스트 카다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현지 기독교계는 앞으로 찾아올 변화가 리비아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리비아 현지 교계 지도자로, 미국 남침례교회(SBC) 국제선교부(IBM) 협력 사역자인 닉크립켄(가명) 목사는 이 교단 언론인 뱁티스트프레스(B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들이 리비아의 안정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안정이 예수로 나아가는 국민의 권리를 막는 정권만의 안정이라면 이는 지금껏 없었던 최악의 박해가 될 것"이라며 "로마제국 아래서 초대교회들이 누렸던 것과 가졌던 것과 같은 복음 전파의 권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줄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립켄 목사는 이같은 기도제목은 리비아뿐 아니라 튀니지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에 영향을 받은 다른 중동·북아프리카 교회들의 기도제목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 교인들이 리비아와 다른 나라들에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 권리로 인정되는 변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향후 세워질 새로운 정치 체제가 종교자유를 억압한다면 현지 교계는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막는 모든 박해자들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랍월드미니스트리즈(AWM)의 데이빗 인스 디렉터는 이와 더불어 혼란한 정세 속에서 리비아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 역시 요청했다. 그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랍권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으며 리비아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담대히 드러낼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불확실함의 기간 동안 이들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에는 알려져 있는 기독교인 수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최근들어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며 "수에 있어서는 매우 적지만 이들이 주의 권능으로 자신들의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를 위해서 앞으로 리비아에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것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리비아가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전 세계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리비아는 인구 97% 이상이 무슬림이고, 이에 비해 극히 소수인 3% 가량을 차지하는 타종교인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비아 기독교 인구 중에는 콥틱 정교회와 로마가톨릭이 각각 6만여 명, 4만여 명으로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하며 그 외에 러시아정교회, 세르비아정교회, 그리스정교회, 성공회 등이 있다. 최근에는 복음주의 교회들도 매우 적은 수지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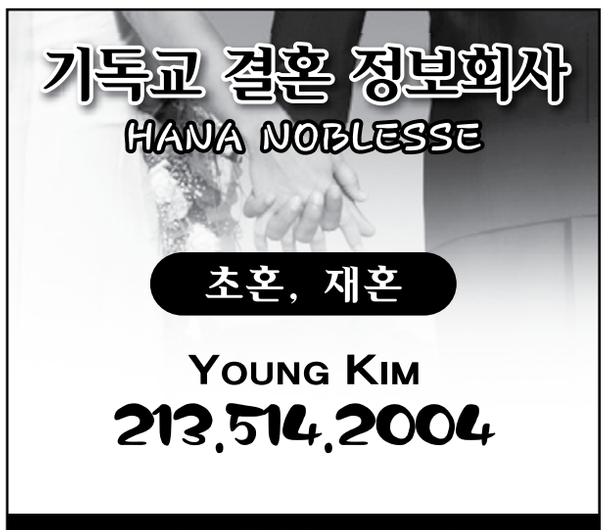
한국 핸드폰빌려가세요 702.812.4770 Kim Wray
눈, 코, 귀,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손에는 전화기가 있으니 만사해결!
임대료 $3.00 a day $21.00/wk | 국제 39¢ a min / 국내 | 받는통화 공짜!
■ 가격은 인천공항의 50%수준 ■ 고급 앤드폰 제공 ■ 장기 – 스페셜 할인! ■ 미국 어디나 무료 배달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TEL. 800.347.7057 워싱턴DC 지사 TEL. 800.228.2928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유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ersity@yahoo.com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848S. Gramercy Dr #106 L.A., CA 90005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전 세계에는 2만 여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아시아권에 1만3천869명, 유럽에 1천988명, 아메리카권에 3천124명, 아프리카 중동권에 1천907명 그리고 오세아니아 태평양권에 713명이 파송돼 있습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계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아울러 신문 보내기로 문서선교에 동참하시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미주크리스천신문 선물'은 일년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희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 소		
전 화	팩스:	
이메일	@	
기 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더 확실한 크리스천 보호대책 있어야 한다!

VOM, 파키스탄 정부의 신성 모독죄가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박해 실상 소개

현재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이후,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과 보복공격이 확실히 늘고 있다. 파키스탄은 기독교 인구가 3% 밖에 되지 않고,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공격이 늘 있어 왔던 나라이다. 파키스탄 기독교인 협의회의 나지르 바티 박사는 최근 파키스탄 정부에 대해 기독교계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수립해줘야만 빈 라덴의 사망 이후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잡주(Punjab) 라호르(Lahore) 구지란왈라(Gujranwala)에서 신성 모독죄(blasphemy)로 고발된 두 명의 기독교인을 경찰이 풀어주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구지란왈라에 있는 500여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 가정과 학교, 교회를 공격했다.

1967년부터 지구촌 박해받는 교회들의 대변인이 돼왔던 "순교자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Martyers)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의 박해 실상을 최근 자세하게 전해준다(Christians Under Fire).

파키스탄에서 최근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 당한 기독교인 여성이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지 교계의 이 같은 지지 속에 비비는 지난 20일 직접 대통령에게 사면청원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푼잡주지사에 의해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의 석방에 대해 현지 교계는 "우리는 그녀가 비로소 안전해진 것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성모독법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무고한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우려를 전하고, 신성모독법 폐지가 시급한 과제임을 주장했다.

파키스탄에서 1986년 제정된 신성모독법은 법령을 만들어내게 된 동기가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다.

파키스탄 형법(Pakistan Penal Code) 제 295-B, C, 제 298 A, B, C조는 소위 '신성모독법(Blasphemy laws)'라고 불리는 조항들인데, 이 조항들은 1986년 당시 군부통치자(Zia Ul-haq)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만들었다.

형법 제 295-B조는 코란에 대한 모독행위(코란의 파기, 훼손, 기타 코란의 신성성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종신형으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동조 C항은 예언자, 즉 무함마드에 대한 불경스런 각종의 직간접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 사형 또는 종신형과 아울러 벌금부과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298-A조에서는 기타 이슬람의 성인들(무함마드의 부인 또는 가족들, 이슬람 칼리파와 그들의 동료들)에 대한 불경스런 각종의 직간접적 언어, 시각적 표현은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동조 B항에서는 298-A조에 나온 이슬람 성인들의 명칭이나 각종 종교용어들을 법률의 규정과 다르게 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잇따른 사태 불구 수동적 태도 고지
경비인력 고용·감시카메라 설치 충고뿐

아시아 비비(Asis Bibi, 일부 언론에는 아시아 노린으로 보도됨)는 작년 6월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농장에서 무슬림인 동료들의 시비로 말싸움을 벌이던 중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마호메트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다가 동료들은 물론 마을 무슬림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뒤 이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비비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자주 무슬림 동료들로부터 이슬람으로의 재개종을 강요당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반 가량 투옥되어 있던 비비는 지난 8일 파키스탄 펀잡 주 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다. 현지 교계는 이 같은 판결은 지역 무슬림 지도자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비 이전에도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대부분이 항고심 과정에서 석방돼왔다. 그러나 여성이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언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로, 국제인권단체들은 이슬람 국가들에서 신성모독법이 타 종교 탄압을 위해 무죄하고 약한 이들에게 적용되는 현실에 대한 환기를 촉구하고 있다.

파키스탄기독교총회(PCC)는 사형 판결 직후 비비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신성모독법 폐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시아 비비 사면으로 신성모독법에 따른 독소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펀잡 주에는 여전히 극단적인 무슬림들로 인한 일촉즉발의 긴장이 돌고 있다. 현재 약 2,500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펀잡주는 아시아 비비(Asia Bibi) 사건과 신성모독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던 타시르(S. Taseer) 주지사가 살해된 곳이다. 이어진 샤바즈 바티(S. Bhatti) 소수민족부 장관의 암살, 빈 라덴 사망이후 이슬람 강경파들이 기독교 그리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상황에서 파키스탄기독교인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다.

여기에 테리 존스 목사의 코란 소각사건까지 있었고 코란 소각과 관련해 두 명의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이유 없는 죽음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부가 기독교계 주민들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 이슬라마바드 서쪽 35㎞에 위치한 와칸트 지역에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자 현지 경찰은 교회에 대해 기독교인으로 경비인력을 고용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충고할 뿐, 그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 듯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랑과 평화의 모자나누기를 위해 참가자들이 직접 디자인한 모자들

한인 청소년/대학생들을 위한

'유엔세계인도주의날' 리더십 캠프 성황

유엔이 매년 9월 19일 전 세계의 재난과 기근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돕고 현장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위로하는 '유엔세계인도주의날'(UN World Humanitarian Day) 기념 청소년 켐프가 지난 13일과 14일 워싱턴 DC 평화나눔공동체 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자문회원기구인 GCS International과 평화나눔공동체가 공동주최하고 CTS기독교TV(감경철 회장) 워싱턴지사가 후원했으며, 유엔 구호단체 연구발표, 지역사회 빈민을 향한 구호활동 전개, 자연재난과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발표, 유엔인도주의날 홍보 캠페인, 영문뉴스레터 만들기, 유투브동영상만들기, 오바마대통령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보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다.

미 전역에서 참석한 한인청소년들은 "노숙자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모자 나누기" 행사를 통해, 자신들이 직접 칼러 매직으로 디자인한 모자를 DC지역의 빈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도 가졌다. 학생들은 "I Love UN!" "PEACE" " I Love Jesus" 등 유엔인도주의날을 기념하는 디자인과 로고를 모자에 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직접 인도주의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제와 나라를 정해 연구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최근 재난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 아이티, 동부아프리카, 도심지의 노숙자들을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어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11년 유엔인도주의날 기념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매년 인도주의적 재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돕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유엔 회원국제기구들과 평화나눔공동체는 오는 9월 17(토)일과 18일(일) 이틀간 워싱턴 DC 평화나눔공동체 센터에서 '유엔세계평화의날' 기념 캠프를 연다. GCS International유엔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최상진 목사(평화나눔공동체 대표)는 "유엔세계평화의날 행사는 전 세계국가에서 동시에 열리는 거대한 평화축제로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게 해주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대상은 5학년부터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유엔회원국제기구들이 수여하는 20시간의 사회봉사 크레딧과 수료증을 받는다. 참가비는 이틀간의 숙식을 포함해 일인당 200달러이다. 자세한 문의는 (571)259-4937(최상진 목사)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2010년까지 성경번역언어 2,527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난해 번역현황 보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는 지난해 12월까지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수가 2009년보다 19개 늘어난 2,527개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에는 6,600여개의 언어가 있으나, 신·구이 모두 번역된 경우는 500개 언어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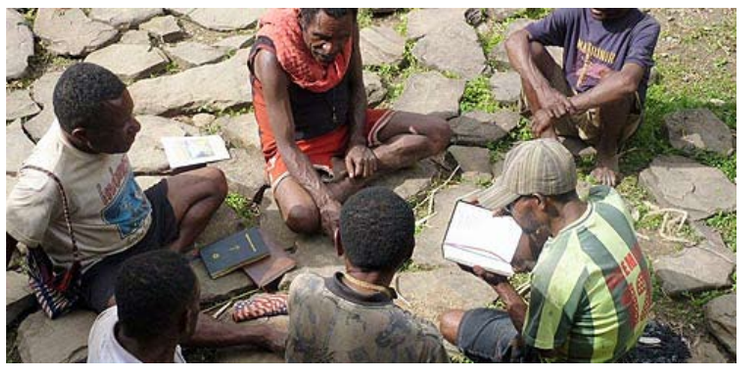
2010년 성서번역 현황을 살펴보면, 성경은 지난해보다 10개 언어로 더 번역돼 총 469개, 신약은 18개가 더해져 총 1231개, 단편은 827개 등이다. 단편 번역 수는 2009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해당 언어의 신약 번역이 완성된 경우가 있어 단편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눈길을 끄는 대목은 '추바시야 성서번역 프로젝트'다. 추바시야(Chuvasia)는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으로 모스크바에서 4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 2백만여 명이 이곳에서 추바시 언어를 사용한다. 20년 전인 지난 1991년 추바시 성서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1998년에는 예언서와 어린이 성경이, 2001년에는 모세오경이 각각 출간됐다.

그러나 번역가들은 이후 지혜서와 시편을 출간할 자금이 없음을 알고 좌절했다. 번역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 있던 추바시의 작가이자 교사인 에바 리시나는 이를 놓고 기도했고, 그러던 중 독일 라디오방송국에서 그의 연극 작품을 사용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이 때 수표로 받은 저작권료는 정확히 추바시 성서 제작에 추가로 필요한 액수와 일치했다. 에바는 망설임 없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작권료를 기부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에서 사용 중인 키미알(Kimyal)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언어다. 키미알 사람들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받았다. 키미알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한 UBS는 번역 워크숍을 통해 번역가들을 훈련시키고, 번역 자문을 보내 질을 높였다. 키미알인 수백 명은 신약성경을 갖고 오는 비행기를 맞기 위해 활주로 주변에 모여들었으며, 비행기가 도착하자 다 같이 눈을 감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UBS 산하 성서공회들은 성경이 미 번역된 4백여 언어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전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에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낱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할렐루야백화점

개역 개정 선경과 새 찬송가로 바꾸시렵니까?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쎄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보급처 성서보급회 (할렐루야백화점부설)

멀티프로젝터

Product	LIST	HM PRICE
2300 ANSI LUMENS 2000:1	$1,095.00	$699.99
2600 ANSI LUMENS 2200:1	$1,295.00	$899.99
3000 ANSI LUMENS 2000:1	$1,795.00	$1,199.99
3300 ANSI LUMENS 600:1	$3,195.00	$2,399.99
5200 ANSI LUMENS 1200:1	$6,995.00	$5,299.00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nglish Bible, Christian Book,
여름성경학교 수건, 컵,
쟁반, 펜등의 교회판촉물 전문업체

도서
신앙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
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목회와 신학, 성경/찬송가
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새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멀티프로젝터 샤프 2600 ANSI LUMENS 밝기 2200:1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DLP-XGA 특가 $835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사님, 박사, 졸업가운, 성가대 헌금위원, 드레스·정장양복

미 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첼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첼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업계 최초 GD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진흥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남품업체 선정
이동이 자유로운 바퀴(360도회전)
순금(1기둥당 1돈중)
상단전체 무광처리 - 설교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샤핑몰 www.gospelmal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m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음향, 영상, 조명 (213)447-4011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까운, 달력, 다이어리

크리스천 가정상담

염인숙 전도사(기독교상담소 소장)

용납할 수 없는 아버지의 분노

아무리 한국의 정서라고 해도 아버지가 툭하면 화를 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최근에 비즈니스의 어려움 등으로 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평생 가정에서 분노로 문제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았고 이제 성장한 자녀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권위를 세워주지 않고 건방지게 말하는 우리의 태도가 화를 돋운다고 반대로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를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한국 남자들은 화를 심하게 내나요?

부모사랑은 성경원리... 끊을 수 없어

분노는 이민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방법 중에서 극복되어야 할 큰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느 한 쪽에서만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녀세대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소중한 가족관계가 오해 또는 갈등으로 점철되어 심하면 가족 구성원이 성격 또는 정신장애로 발전하거나 가족이 붕괴되기도 하기에 위의 사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민자들 중 부모세대가 특별히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는 데는 일반적인 원인들과 가정마다 내포하고 있는 개별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부모세대는 감정표현에 대해 서투른 세대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감정의 억제를 미덕으로 이해하면서 성장하여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억압된 감정들이 왜곡되게 인성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억제된 감정이 상기되는 상황에 부딪치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가족체계 속에서 가장은 권위를 세우기보다 권위주의로 가족관계를 다스려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세대들이 전통 가족제도의 영향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모델링이 없거나 우리와 똑같이 감정 학대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상처가 자녀들에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첫째는 부모가 분노로 드러나는 뿌리 감정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기능적인 소통의 고리를 끊어냄으로 가족 안에서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권위상실로 인한 상처를 파괴적으로 표출하기보다 가족을 배려하면서 권위주의의 탈을 벗어내야 합니다.

한편, 자녀세대들도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삶의 뿌리를 뽑은 뒤 다시 뿌리내리지 못한 이민자로서 겪는 부모의 불안함과 슬픔의 자리에서야 부모의 감정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릴 것입니다.

자녀들은 인권이 부권(夫權)보다 존중되는 가치교육 하에서 성장하면서 화내는 부모를 용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면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측면에서 부모의 감정조절을 돕는 것도 가족 구조 내에서 사명일 수 있습니다.

효는 유교사상의 오륜(五倫)의 하나인 인(仁)을 덕과 윤리의 근본으로 한 사상인데 양반들의 신분적 확보와 농경사회의 유지를 위한 가부장제도와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관계를 맺는 수직윤리가 되어 현대사회에서 불편하게 관계 갈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물론 무절제한 권위주의는 극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도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자녀로서 분노를 절제 못하는 부모를 향하여 관계 단절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이를 품어주는 사랑과 지혜를 실천할 것을 도전해 봅니다. 구약성경은 출 20:12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분노를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을 도전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가장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모공경이 인간 사랑의 시작임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구한다면 부모를 공경함이 이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공경관계가 무너질 때 가정은 위기로 치닫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잠1:8-9),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잠23:22),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1-3)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상처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믿음의 본분임을 가르칩니다. 남녀사랑, 부부와 자녀사랑 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인 계명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4-7에 따르면 위대한 사랑은 포기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끝까지 해내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표함은 부모 사랑이 모든 사랑의 뿌리이고 권위에 대한 순종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실수하고 악을 행하는 부모도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분노케 하고 상처를 주는 사례도 많지만 자식의 본분은 부모를 존경하는 일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를 거절하고 싶더라도 사랑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또 다른 미움과 분노로 반응할 때 가족 안에서 상처, 경멸과 거부라는 싹은 계속 심겨질 것입니다. 가정은 파국으로 갈 것이며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힘든 관계 속에서도 부모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공경자세를 지켜낼 때 사단의 계략에서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를 거절하면 우리 마음의 고향이 없어지고 영적 이방인이 됩니다. 부모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만 부모를 용서하고 품고 다시 사랑하는 시각으로 부모를 대할 때 현재 이민사회에서서 1세와 2세 간의 갈등의 고리가 풀어지고 소통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 사랑의 원리이며 자녀세대를 도전하는 사례입니다. ▲연락처: (213) 381-7554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월 하나님의 뜻 중심 (마3:13-17)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15절 말씀은 세례주기를 망설이는 요한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이해가 안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범죄자로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함으로 대신 죄 있는 인간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의루고 그분의 뜻을 성취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되더라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돼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 광야의 시험 (마4:1-6)

1절의 '그때에'란 예수의 수세사건 직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엄청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그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칭호와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이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였기에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되었듯이 믿음과 사명의 크기는 시험의 크기와 비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회피하는 소극적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적극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더 큰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4:7-10)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사단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한 답변으로 신앙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재차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들은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만큼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요20:29)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든든하게 서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 천사들의 수종 (마4:11)

"천사들이 나아와 수종드니라"(11b)와 막1:13을 종합해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든 것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이후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식과 시험기간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홀로 사단과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돕게 하시고 주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시자 나아와 수종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과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거나 상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용기를 내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천사들까지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 물리치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 복을 볼 줄 아는 안목 (마4:12-17)

13절, 주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메시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엄청난 선포를 하셨지만 나사렛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외모만 보았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야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진정한 복과 가짜 복을 가릴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복'을 원하며 정신없이 헤매고 있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시73:28).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며 모든 복의 보화는 그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자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 되게 하리라 (마4:18-22)

19절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또는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노력이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실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내 욕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영광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종교 제한, 전 세계 23개국서 과거보다 증가

기독교인, 198개국 중 130개국서 제한 당해

지난 3년간 총 23개국에서 종교에 대한 제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퓨 포럼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98개 국가와 자치 영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개국에서만 종교에 대한 제한이 감소했고(6%), 대부분인 163개국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82%), 23개국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12%)고 밝혔다.

23개국 중에서도 종교 제한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져 국민들 다수가 '신앙의 실천이 예전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는 국가로는 중국, 이집트, 프랑스, 나이지리아, 러시아, 태국, 베트남과 영국의 8개국이 꼽혔다.

한편, 이들 23개국들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세계 인구수의 3분의1 가량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 세계에서 3명 중 1명은 종교로 인해 과거보다 더 큰 제한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퓨 포럼은 종교 제한을 법이나 정책을 통한 제도적인 제한과, 적대감과 반감 등 사회적 제한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제도적인 제재가 가장 높은 국가들은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밀집돼 있었으며, 사회적 제재의 경우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종교별로 겪는 제한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이 198개국 중 130개국에서 신앙을 갖고 실천하는 데 대한 제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다음은 무슬림(117개국), 유대교인(75%), 불교인(16%) 순이었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 노재현
주일 1부예배 : 오전 5: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 권태진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1:00
주일 5부예배 : 오후 2:30
저 녁 예 배 :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870-10호

금 란 교 회

담임목사 : 김정민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1:30
주 일 밤 예배 :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 (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동청
주일낮가족예배1부: 오전 7:40
주일낮가족예배2부: 오전 9:30
주일낮가족예배2부: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82)31-984-2939, Fax.(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기승
주 일 1부 예 배: 오전 9:30
주 일 2부 예 배: 오전 11:00
수 요 기 도 회: 오후 7: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 이강헌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11:00
주일 3부예배 :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 오후 5:00
Tel.(03)3208-8491~5, Fax.(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장향희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 오후 7:00
수요예배 : 오전 11:00,7:00
금요철야예배 :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평우
주일1부예배 : 오전7:00
주일2부예배 : 오후2:00
주일3부예배 : 오후4:00
수 요 예 배 : 오후8:00
새 벽 기 도 :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 성 교 회

담임목사 : 김삼환
주일 1부예배 :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 오후 1:20
새 벽 기 도 :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82)2-440-9000, Fax.(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삼 보 교 회

담임목사 : 박창윤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00
Tel.(02)2645-6567~9, Fax(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 소강석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2:30
주일 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 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 1부예배: 오전 5:00
새벽 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Tel.(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 실 교 회

담임목사 : 김영복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 일 교 회

담임목사 : 김정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 오전 5:30(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 영 로 교 회

담임목사 : 정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5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2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Tel.(82)51-740-4500,4556~8, Fax.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418-1, (612-824)

수 정 교 회

담임목사 : 조일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4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 (404-270)

승 동 교 회

담임목사 :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 요 예 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 김성길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후 2:00
새벽예배 :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 길 교 회

담임목사 : 이신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 촌 교 회

담임목사 : 이정익
주일 1부예배 :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 조 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심 야 기 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 곡 교 회

담임목사 : 지용수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86-4710~4, Fax.(055)28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3

왕 성 교 회

담임목사 : 길자연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기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3:0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 안 교 회

담임목사 : 나겸일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4: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 대 교 회

담임목사 : 최용도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 주서택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수 요 예 배 : 오후 7:00
새 벽 기 도 :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 신 교 회

담임목사 : 박종순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www.nyckcg.org

"뉴욕이여! 생기로 충만하라!"

2011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zation Conference

일시 주후 2011년 9월 9일(금) ~11일(주일)
9일(금),10일(토) - 오후 7시 30분 / 11일(주일) - 오후 5시 30분

장소 프라미스 교회(김남수 목사)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강사
서 임 중 목사
(포항중앙교회 당회장)

장로회신학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관동대학교 대학원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D.Ed.) / Yuin University (Ph.D.)
Cohen University 명예문학박사 (H.Litt.D.)

어린이 복음화대회

- 일시: 2011년 9월 9일(금), 10일(토) 7:30pm - 11일(주일)5:30pm
- 장소: 프라미스교회
- 강사 : 최호섭 목사(뉴욕영락 교회)

청소년 복음화대회

- 일시: 2011년 10월 21일(금) - 23일(주일) 7:00pm
- 장소: 프라미스교회
- Theme: Evangelism in Schools / Speaker: Pastor Paul Cody

지도자컨퍼런스

- 일시: 2011년 9월 12일(월) - 14일(수)
- 장소: Spruce Lake Retreat
- 강사: 박희민 목사, 김영길 목사, 서임중 목사, 손병렬 목사

2011 할렐루야 대회 후원사역

단기 선교 후원 / 지도자 컨퍼런스 / 장학금 수여 / 다민족 전도 후원 / 원로 목사 후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35-34 Union St. #3FL. Flushing, NY 11354 Tel (718)358-0074 Fax (718)321-0105 Email: nyckcg@gmail.com

회장 김원기 목사 총무 허윤준 목사 서기 현영갑 목사 준비위원장 이희선 목사 진행위원장 박태규 목사